문화여성

문화매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지역사회의 튼튼한 동반자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명시 범안로 1063(이안동)
☎ (02-896-3141-4)

제 1077호 2021년 6 월 23일 수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문 대통령 "한국 달라진 위상 확인… 세계서 인정받는 나라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3개국 순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단합해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이 이뤄낸 성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며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됐고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며 한국 경제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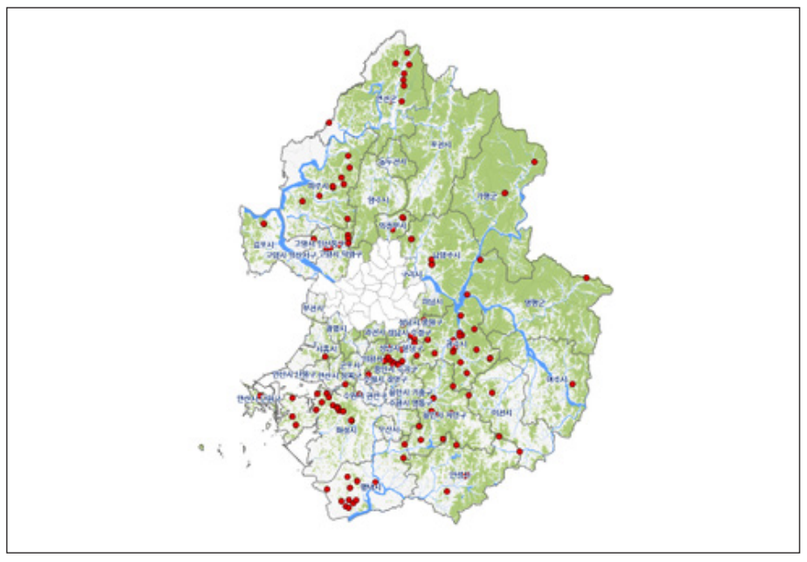
이어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소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은 뛰어난 공감력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K-브랜드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며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중요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내 18개 시·군 임야,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 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최정근/기자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밀착 감시…준법감시관 임용

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 해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아울러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은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기고]다문화학생만이갖는좋은점

Hello, My name is Yeonkyeong Hu. I am attending in Songok Middle school in Yongin. When I grow up, I want to be Drug Developer. So I am reading books about chemistry and science to achieve my goal. I am not talented in chemistry and science but I believe I can do it. I have my second dream too, My second dream is becoming a interpreter. My family is multicultural family. My mother is Chinese and my father is Korean. Because my mother Chinese I could learn Chinese language. Now, I am interested in learning various language. So I learn speaking Chinese language. And I speak a little bit of Chinese. I have been learning English for four years. As a result I can speak English that communicate with others. also, I am good at English composition. So I can let people understand what I am I talking about. Surprisingly. I am learning Spanish too, I have been learning Spanish for more than two month. To expand my dream I begin with attending multicultural center career program in Yongin.

I was interested in a this program which help me to find my career. I met Professor Kim won ho who is supporting me in order to come true my dream. Prof always guide to improve my interest and aptitude.. He wants me to read various books. As a result of reading a lot, creative thinking has improved a lot. And I have learned what to do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I think this program is very good because I can learn things that I can't learn in school. Thanks to the multicultural center and Yongin City for finding my dream.

안녕하세요. 저는 허연경 입니다. 저는 용인에 있는 송옥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약품 계발업자가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화학과 과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화학과 과학에 재능은 없지만,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저에게 두 번째 꿈이 있는데 통역관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다문화 가족이에요. 엄마는 중국분이고 아빠는 한국인이지요. 엄마가 중국인이라서 저는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다양한 언어 배우기에 관심이 있어요. 중국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영어는 4년 동안 배웠지요. 그 결과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요. 또한, 저는 영어 작문을 잘해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죠. 놀랍게도,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어요. 두 달 이상 되었네요. 꿈을 확장하기 위해서 용인에 있는 다문화 센터 진로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저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는 김원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흥미와 적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양한 책을 읽으라고 권해주었어요. 책을 많이 읽은 결과 창의적인 생각이 향상되었어요. 저는 4차 산업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을 찾아주는 용인시와 다문화 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송옥중학교2학년허연경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지원금액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2년 1월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만식/기자

서울시의회, "지하철 약국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

성중기 의원, 시민 의료 서비스 향상 및 공사 수익 증대 1석2조 효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6월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하철 내 약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인해 지자체 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으며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여 약국 입점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는 약국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작년 12월 15일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게 되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대장을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작년 6월경 지하철 약국은 총 6개 소뿐이었지만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후 3개소,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에는 14개소가 증가하여 1년간 총 17개소가 늘어나 기존 대비 약국이 약 2.8배나 증가하였다. 이 밖에 새로 입점한 약국 17개의 월임대료는 총 1억 5백만 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약 60억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공론화 시켜왔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내 약국 입점은 각 관련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1년 만에 약국이 3배나 증가하였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증가하는 약국 입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양기대 의원 "문 대통령, 광명·시흥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적극 지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문정복 국회의원(경기시흥갑),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회동에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신도시로 옮겨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에서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다면 풀어서 도와주라"고 그 자리에 배석한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공동주최자인 문 의원은 "시흥·광명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가 조성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최근 대통령께서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자는 비전을 밝혔다"며 "오늘 토론회는 국가적 과제를 준비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도 "광명·시흥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만들어 미래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미래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에 적합하다"며 "주거와 함께 첨단 미래형 전기자동차 집적단지로 복합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은 "지역주민의 찬성과 중앙정부의 관심 등 굉장히 좋은 키를 가지고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전기차공장 전환 추진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이라는 타이밍 역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에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덧붙였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나라 스마트시티 중 인더스트리(산업)이 들어가서 계획된 첫 사례"라며 당위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자동차의 미래인 전기차의 산업파급 효과가 크다"며 "전기차를 매개로 하는 혁신클러스트 국가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이탄희 의원 지역공약 달성 '순항 중'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지역위원장)은 임기 1년을 맞아 가진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 기간'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지역 현안과 공약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했다.

의원실은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각종 간담회와 공약점검회의를 가진 결과 65개 지역공약 중 △완료 6개(9.2%) △정상추진 29개(44.6%) △추진중 28개(43%) △검토단계 2개(3.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이미 성과를 보인 공약(완료, 정상추진)이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인 공약 역시 43%로 공약 대부분이 무리없이 순항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 '정상추진'은 공약대로 진행 중이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 '추진 중'은 공약 추진 중이나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태를 의미함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역구인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일원 플랫폼시티 개발 관련 공약에 대해 "여러 차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용인시 관계부서로부터 진행 현황, 추후 계획을 보고받고 협의했다"며 "교통과 산업, 주거가 잘 어우러진 3기 신도시 개발이 되도록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동백-GTX-신분당선 연계 신철도망 구축과 동백IC 신설, 동백 M버스 개통 등 교통환경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동백 연계 신철도망과 관련하여 용인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지사와 도의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에게 동백M버스의 상반기 개통 약속 이행을 촉구하여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탄희 의원은 지역구 학교 챙기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총 29개 학교에 99억여원의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40년 이상 노후학교 리모델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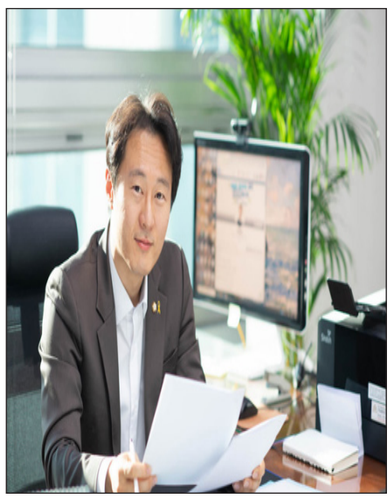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여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보정종합복지회관(도서관 포함)과 동백종합복지회관(수영장 포함)은 지난해 이탄희 의원이 생활SOC예산 151억원을 확보하면서 추진에 물꼬를 텄다. 현재 두 종합복지회관 사업은 설계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기흥구 마북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마북천 정비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단국대 후문 도로 1구간은 지난 5월에 완료되었고, 2구간은 내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마북동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난해 말 선정이 확정돼,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다.

그밖에 기흥구 구성동주민센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 옛 경찰대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 등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수지구 죽전1동 죽전파출소는 올 3월에 착공해 10월 말경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죽전1동 탄천 정비는 지난해 말 완료하였고, 보행로 데크 설치 사업도 올 4월에 착공해 진행 중이다.

수지구 상현2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소실봉 정비는 올해 정상 데크 설치비 4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고, 출입로 정비 등 추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상현2동과 보정동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추진으로 플랫폼시티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정과 함께 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물을 공유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용인정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영등포구, 명실상부 '평생학습도시' 입증…

YDP미래평생학습관 개관

영등포가 평생학습 대표도시로 재탄생한다. 구민 평생학습을 선도할 YDP미래평생학습관이 오는 6월 18일 공식 개관을 알리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2016년 6월, 대림동 소재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남부학습센터가 양천구 목동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비어있는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구민을 위한 창의적 평생학습 공간으로 재조성했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남부학습센터 구관 시설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대학 관계자와의 논의와 협조, 실무 부서간 TF팀 조성 등 끊임없는 소통을 진행하며, 2020년 9월,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완료하고 6월 초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며 학습관의 첫 문을 열게 되었다.

평생학습관은 ▲1층 북라운지와 맘든든센터가, ▲2층에는 방송통신대의 서고가 자리하고, ▲3층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될 강의실과 동아리실이, ▲4층은 중장년 일자리플랫폼과 IT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교육장, 융합인재교육실, ▲5층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대강당과 다목적실이 들어서있다.

학습관의 주 이용 대상이 구민인 만큼, 북라운지, 대강당, 융복합인재교실 등 공간별 명칭에서부터 선호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주민 의견을 담아 선정하였다는 점 또한 주민주도적 열린공간 조성에 힘썼다는 데 의미가 깊다.

개관식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구의원,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의 축사, 시설 라운딩 및 현판식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YDP미래평생학습관 소개와 층별 안내, 주요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는 랜딩페이지를 오픈하는 온라인 개관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랜딩페이지를 통해 사전 모집한 신청자의 학습관 투어 현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선보이고, 구민 대상 개관축하 댓글 이벤트, SNS 카드뉴스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관 홍보에 집중한다.

향후 구는 YDP미래평생학습관이 구민의 자유로운 배움과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습 동아리 운영, 재능기부 문화의 활성화 등 선순환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소독과 주기적 환기, 수강생 발열체크 및 손소독 의무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이 구민 모두가 자유롭게 배우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열린 학습공간으로 애용되길 바란다"며, "영등포 구민 누구나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도록 더욱 내실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평생학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서울시, 녹색기업 판로개척 지원 '1차 온라인 기획전' 참여업체 모집

서울시가 녹색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양질의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서울 녹색제품 1차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기획전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기획전은 서울시가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이 부족한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선보일 기회가 줄어든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고, 고객들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실속 있는 녹색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온라인 기획전에는 친환경 세제, 태양광랜턴, 오염공기정화, 공기청정기 등 약 600여 종류의 녹색제품이 선을 보였다.

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기업의 비대면-온라인 판매 역량이 중요해진 만큼 온라인 기획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7월에서 10월 중 온라인 기획전을 3회 개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에 상품입점 및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기획전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제품은 정부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기획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온라인 기획전에는 녹색중소기업 133개사(중복포함)가 참여, 약 37,287개 상품이 판매된 결과, 전년 대비 기획전 매출이 약 9배 증가한 총 4억 8,072만 원을 달성하였다.

지난해 온라인 기획전은 '19년도에 비하여 참여기업 4.3배 증가(`19년 31개사→'20년 133개사, 중복포함), 매출액 8.7배 증가(`19년 5,490만 원→'20년 48,072만 원)라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기획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서울시는 '녹색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온라인 판매 관리를 대행하고, 녹색중소기업이 온라인 매출 확보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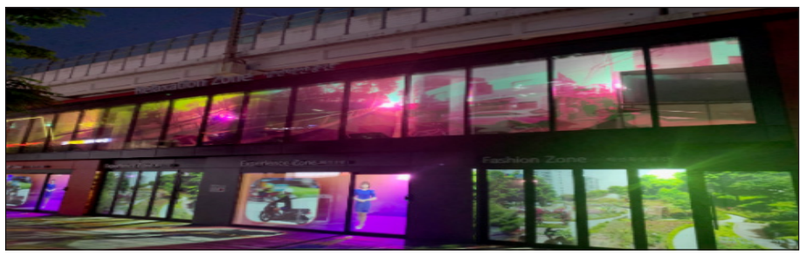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는 녹색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역량 강화(창업·전문멘토링, 녹색인증 취득지원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및 녹색산업 정책 인프라 구축(녹색산업 실태 조사, 정책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녹색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울형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녹색기술센터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녹색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 시작부터 자립까지 성장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이문주 녹색에너지과장은 "녹색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은 서울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며 "녹색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성동구, 건물 스크린으로 만나는 '성수동 빛 퍼레이드'



서울 성동구는 이달 16일부터 성수동 산업혁신공간 외벽에 미디어파사드1) (Media Facade)를 통해 인근 행인들에게 신선함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구는 산업혁신 건물에 구정의 비전과 성수도시재생사업, 성동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담은 '기적도시' 영상 등 성동구의 다양한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출하며 인근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과 28종의 장미 9천 주가 식재된 '대현산 장미원', 도심 속 힐링장소 '서울숲'을 보여주며 구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응원한다.

구는 최근 성수동의 다양한 산업·문화자산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청년산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2019년 말 '성수 도시재생 산업혁신공간'을 마련했다.

산업혁신공간은 홍보 및 체험공간과 청년혁신공간으로 구성되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및 체험관을 운영하고 디자인제품 및 청년 작가의 작품도 전시, 6개 분야의 팝업스토어 창업 스쿨 프로그램 2) 운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며 산업, 문화, 창업, 홍보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디어파사드를 통한 빛 퍼레이드는 건물외관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과 함께 산업혁신공간을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성수동의 또 다른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홀로그램을 한참 동안 관람한 한 행인은 "코로나19로 가족과 같이 갈 곳이 없는데 동네 공공건물에 천연색의 볼거리가 생겨 다음에도 가족과 함께 감상하러 또 오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산업혁신공간에 성수동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청년산업에 감각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도봉구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아이나라 요리스쿨' 운영

도봉구 도봉아이나라도서관에서 7월부터 8월까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영어특화프로그램 '아이나라 요리스쿨'을 운영한다.

도봉아이나라도서관은 영어특화도서관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어중심 융합 프로그램인 '아이나라 요리스쿨'을 기획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도봉아이나라도서관은 매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영어를 융합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금번에는 요리를 주제로 한 '아이나라 요리스쿨 ~요리조리 영어의 맛~'을 소개한다.

'아이나라 요리스쿨'에서는 영어그림책을 매개로 삼아 다양한 해외음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오감을 활용한 요리 실습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은 흥미로운 영어독서를 경험하고 자기주도적 독서습관도 형성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년별 맞춤 수업 제공을 위해 두 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써니반은 전문 영어 강사가 수업하며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 금요일마다 90분간 진행하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피반은 '그림책 레시피'의 저자가 직접 수업을 맡아 휴관일인 화요일을 제외하고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써니반은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피반은 7월 중순에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추가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서관마다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흥미로운 통합형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많이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금천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금천구가 코로나19로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1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번째 개최되는 G밸리 수출상담회는 G밸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 서울산업진흥원(SBA),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역할을 분담하여 매년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그간 수출상담회는 G밸리 산업·문화 행사 주간인 'G밸리 Week' 기간 동안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올 해는 6월 23~25일, 8월 25~27일, 10월 6~8일(G밸리 Week 기간) 총 3회차로 진행, 참여 기업이 보다 다양한 권역의 해외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서울산업진흥원(SBA) G밸리 지원거점공간에 마련된 부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전기전자, 생활소비재, 미디어콘텐츠 분야 등의 금천구·서울시 소재 기업 약 66개사 및 해외바이어 30개사 이상이 참여해 상담스케줄에 따라 1:1 매칭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참가기업에게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정보 제공, 통역 지원, 제품 샘플 배송 등 상담 전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왕홍 생방송 프로모션, 오프라인 쇼룸 운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G밸리 소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강동구 상일2동주민센터, 7월 1일 업무개시

강동구 상일2동주민센터가 강일동에서 분동되어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구는 고덕강일지구 대규모 입주로 인해 강일동의 인구 과밀화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자로 고덕로 위쪽을 강일동, 아래쪽은 상일2동으로 분동하여 효율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고덕리엔파크3단지와 고덕강일1·3지구에 대해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민의 혼란을 줄이고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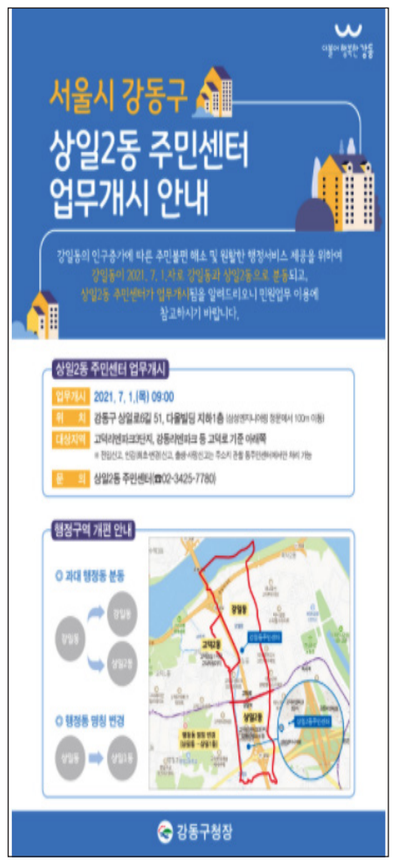
상일2동주민센터 임시청사(상일로 6길 51)는 삼성엔지니어링 정문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신축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상일2동 주민들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업무개시일부터 전입신고, 인감신고, 출생·사망 신고 등의 신고 업무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일동의 향후 인구수가 적정수준을 넘어갈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분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일2동 주민들이 새로운 주민센터에서 보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는 분동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배포, 구 소식지 및 SNS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주민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황규석/기자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3단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

마포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가좌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간 경의선 철도부지(舊 성산자동차학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북권의 대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화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8일 마포구청에서 국가철도공단과 '경의선 선형의 숲(3단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김용두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을 비롯, 경의선 공원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에 나선 정청래 국회의원,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 및 시·구의원, 관련단체, 인근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이어 사업대상지 조형물에 치유의 상징이면서 환경오염에 따른 지표종으로도 활용되는 이끼(스칸디아모스)를 꽂는 퍼포먼스를 통해 단절된 숲길의 연결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시간을 잇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의 실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철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시 상호 협력 ▲철도부지 활용사업, 철도건설사업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이다.

구는 해당 철도부지 활용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원조성 사업의 실행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것은 물론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공원조성에 필요한 철도부지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의선 선형의 숲(3단계) 조성사업'은 마포구 중동 27-51 일대 2만 4860㎡ 규모에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 공원화 사업에서 단절됐던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 완료될 예정이다.

구는 해당 부지를 공간별로 특화하고 철길 등을 형상화한 시설물을 도입하는 등 경의선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관을 형성해 철도 문화의 스토리를 담은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구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대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최종 선정됐다.

구와 철도공단은 지난 2014년 2월 경의·공항선 가좌역~수색차량기지 간 지상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까지 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점유시설로 인해 공원화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구가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3월 활용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2014년 협약 체결 이후 중단된 공원화를 위한 7년만의 결실을 이루게 됐다.

이번 협약 체결 이후 구는 올 하반기에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최신 트렌드 등을 반영해 설계안을 보완·확정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부지 일대를 서울의 서북권 대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단절된 경의선 철도변이 숲으로 연결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롯데몰 및 DMC복합역사 개발과 연계해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 커피 제공 훈훈한 감동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현장 찾아 무더위와 힘겹게 싸우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여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감동에 주인공들은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 신축 중인 D 리버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회장 박준영)로 지난 16일 푸드트럭을 임대하여 건설 근로자들에게 아이스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에이드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여 근로자들의 취향에 맞춰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음료 제공은 날씨가 무더워 근로자들이 현장 등에서 힘들어 할 것을 우려하여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 입주자협의회에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가 소통하고 더위와 작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한 음료 제공 통해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음료 제공에 대해 현장 근로자 A 모씨는 "아파트 공사현장 등 많은 현장을 다녀 봤지만, 입주자들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이런 이벤트는 처음 경험 했다"고 말하고 "입주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힘들었던 심신이 풀리는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 다른 근로자 B 모씨도 "오늘 이 음료 한잔은 가격 그 이상에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값진 선물 이었다"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힘을 주는 아주 특별한 행사라고 극찬했다.

이에 박준영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현재까지 안전하고 튼튼하게 성실히 시공을 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자 없는 명품 아파트를 건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D리버파크 아파트는 대방건설에서 뉴브랜드 런칭을 하여 세련되고 고급스런 아파트 단지로 설계되어 7개 동, 722세대 지상 29층으로 건축되어 내년 10월 입주 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인천시' 청년 한자리에 모여 '청년이 만드는 인천 청년정책'

인천 청년 네트워크 위원, 20여개의 정책 제안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청년이 그리는 인천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년 인천 청년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인천 청년 네트워크(2기)는 작년 8월에 발족해 인천 정책 홍보 및 모니터링 뿐 만 아니라 지역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인천시 청년 협의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시장이 참석해 네트워크 청년 위원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발표를 듣고, 코로나19 확산이 야기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청년 취업난, 주거 문제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참석한 청년 위원 및 군·구 청년 대표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인천 청년 네트워크(2기) 위원들은 인천시 청년 협의체로 활동하면서 총 20여개의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중 분야별 4개 정책을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문화예술 분야는 '인천청년문화테이블 운영', 취·창업 분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취업 매칭 시스템 구축', 참여·권리 분야는 '기초·광역단위 청년협의회 구성', 주거·생활안정 분야는 '청년 맞춤형 재정 설계 지원'에 대해 제안했다.

박남춘 시장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인천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청년이 머물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교육·주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은평구, 서울시 최초로 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첫째 날 은평구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남북협력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시에서 은평구가 최초로 체결하였고, 이는 남북교류의 중심축이 될 경의선 출발역인 '수색역'과 통일의 꿈을 안고 명명된 교통의 요지인 1번 국도 '통일로' 그리고 의주에서 천리, 부산에서 천리를 뜻하는 '양천리'라는 옛 지명 등의 지리적 의미와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은평구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남북한 공동번영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시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 도시와의 협력을 추진하게 되며, 은평구는 특색 있는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경문협은 북측과 신뢰있는 교류창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는 경문협과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문화·관광 및 방역·보건의료 등 은평구의 성격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구는 대북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특성과 남북평화교류 상징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통일'을 콘텐츠로 한 통일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다.

구는 남북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구 차원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종석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뿌리가 된다면 국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훨씬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은평구가 남북 간 협력의 모범 모델이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은평구에 남아있는 일제의 대륙침략 전초기지였던 수색역의 조차장과 관사 등의 부정적 문화유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 시 물류의 길목이자 북으로 가는 평화의 전진기지로 희망의 씨앗을 뿌려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한반도 평화경제 플랫폼을 꿈꾸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The 부모_더 스마트한 부모되기' 프로그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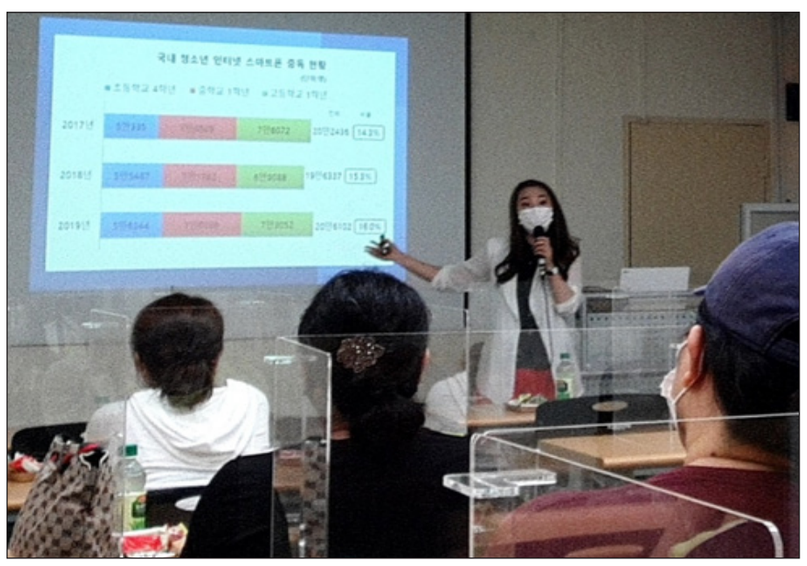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위소독 100% 이하, 긴급위기가족 등 취약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 'The부모_더 스마트한 부모되기'를 진행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The부모_더 스마트한 부모되기'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녀 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6월 10일, 17일 이틀 동안 진행된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운 것 같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약위기가정을 위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 2회 진행하고 있으며 9월경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재은/기자



구로구,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 마련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G밸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금천구 등과 협력해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G밸리 기업들과 해외 바이어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교류하는 행사로, 오는 10월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된다. 1회차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1회차 수출상담회에는 G밸리 등 서울 소재 중소기업 66곳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3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한다.

행사에 앞서 주최 기관들은 서울산업진흥원 G밸리 지원거점공간에 '화상회의장'과 참가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쇼룸'을 마련했다.

참가 기업들은 먼저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의견을 교환한다. 이후 G밸리 지원거점공간에 마련된 '화상회의장'에서 바이어와 직접 대화하며 기업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가별 통역사도 지원된다.

구로구는 참가 기업과 바이어 간 계약 성사를 위해 시제품 해외 발송 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 2, 3회차는 각각 올 8월 북미, 10월 동남아시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수출상담회가 역량은 충분하지만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정부허가받은자격증소유자만반려동물판매. 경기도민79%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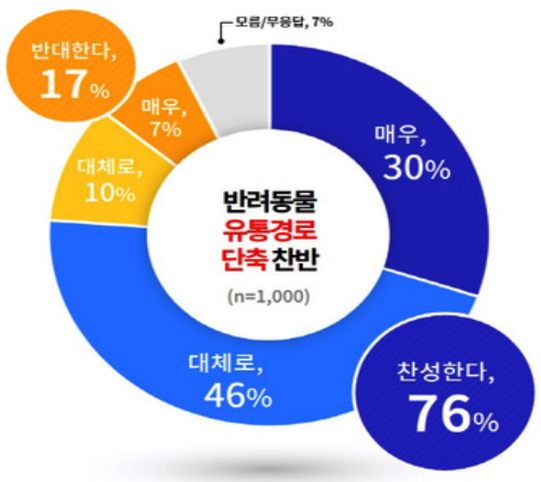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국가·지방정부의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 기관입양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7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반려동물 유통경로를 단축해 생산업자와 입양희망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민 76%가 찬성했다.

입양경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인이나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 등 무상으로 받는 비중과 돈을 주고 '구매'하는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경로를 묻는 말(중복 응답)에는 지인 무료(45%),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7%), 모르는 사람 무료(5%) 등이 57%였으며, 오프라인 판매업체(33%), 지인 유료(10%), 모르는 사람 유료(5%), 온라인 판매업체(4%) 등 '유료 경로'가 53%였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유기동물 보호·입양 센터 입양'(42%)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인 무료입양(25%) ▲지인 유료입양(12%) ▲오프라인 판매업체 입양(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공감대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동물 정책 관련 문항에서는 특별사법경찰단의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활동(81%),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을 비롯한 반려동물 정책(77%) 등 대부분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1~12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 대상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파주시 동물 보호·복지시설 '더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말처럼 거래를 최소화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공장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면허를 줘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오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법안 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연다.

최정부/기자

사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추진

사천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 외곽 경계 지점 12개소에 총 13대의 단속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6월 중으로 추진계획 수립과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7월에는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2021년 6월말 기준 6천대로 전체 등록차량 5만8천대의 약 10%에 이른다.

사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천안시, '오토바이 소음' 6월 집중 합동단속

소음기준 초과 4건,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등 34건 적발

천안시가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소음초과, 불법개조,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일제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과 18일 2회에 걸쳐 충남지방경찰청, 동남·서북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아파트 밀집지역과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청당동 엘지로, 불당동 번영로에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급증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과 무질서 행위, 바이크 라이더의 대형 오토바이 과속질주 등 오토바이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했다.

단속결과 소음기준 초과 4건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위반 등 34건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천안시와 천안동남경찰서는 청수 엘지로에 바이크 라이더 대상 카페가 문을 열면서 전국에서 대형 오토바이가 모여듦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을 6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홍성구 기후대기과장은 "최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과 이웃의 불편에 공감하며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부산시,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해 1천여 건 적발

부산시가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1천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한 달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시의 집중단속 결과 ▲무등록차량(대포차) 2건 ▲불법 구조변경 2건 ▲불법 LED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142건 ▲번호판 가림 120건 ▲미신고 이륜차 295건 ▲무단방치 502건 등 총 1천63건이 적발되었다.

이에 시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1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314건 ▲원상복구·현지 계도 421건 조치하는 한편, 단속기간 자진 또는 강제 처리하지 못한 무단방치 차량 327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자동차 차량 조회 단말기를 동원해 현장에서 즉시 정기검사 및 보험 가입 여부, 구조변경(튜닝) 여부 등을 조회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부산시는 하반기에 불법 자동차 단속반을 대상으로 불법 자동차 유형 및 단속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단속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그동안 부산시의 지속적인 계도·단속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와 운전자의 준법정신 생활화 등으로 위반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광주광역시 , 무신고·불법 의료업소 58곳 적발

무신고 영업 25곳,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33곳

광주광역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및 불법 의료업소 58곳을 적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2일부터 6월18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미용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무신고 미용업 영업 25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31건 등 5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 동구 A업소는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서구 B업소는 미용 면허가 없는 자를 고용해 영업했다.

북구 C업소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업소를 운영했으며, 광산구 D미용업소는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이번 특별수사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자칫 집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과 그동안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등으로 고발이 이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왔고,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업소는 대표자 등을 시에서 직접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대전 중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코로나19관련 대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구 점검반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유흥·단란주점, 7080 칸막이 미설치 후 노래 부르는 행위 여부 ▲전자출입명부 설치(모든 업소) 및 출입자 인증(작성) 여부 ▲3회 이상 환기 후 환기대장작성 ▲1회 이상 소독 후 소독대장 작성여부 ▲기타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3곳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 9곳, 공중위생업소 1곳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자 46명에게 과태료 368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박용갑 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예방수칙준수를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 들었다

4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17개 동 시민과의 대화 마무리

"많이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더 경청하겠습니다"지난 4월 23일 광명2동을 시작으로 6월 17일 철산4동까지 광명시 17개 동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박승원 광명시장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해 광명시가 집중 추진하는 핵심사업과 광명시 100년을 밝힐 주요 정책을 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의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안전, 환경, 교통,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의견이 쏟아졌다.

▲광명동에서는 뉴타운 공사장 안전문제, 목감천 환경 개선,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철산동에서는 재건축·뉴타운 안전문제, 교통대책, 공원 개선에 대한 의견 ▲하안동에서는 공원, 놀이터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 ▲소하동에서는 교통에 대한 의견 ▲학온동에서는 테크노밸리, 신도시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바로 조치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은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박 시장은 주민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기도 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시민 의견은 안전, 환경, 교통, 문화, 교육 등 총 222건으로 현재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며 생생한 목소리와 절박한 심정을 듣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건의사항과 의견들은 꼼꼼히 챙겨 그 결과를 시민 분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각 동에 방문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방문해 인사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빠르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과 함께 일하는 대표도시 광명을 잘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대화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시민과 직접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시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 참석자는 가능한 줄이되 온라인 참여를 늘려 시민 의견을 최대한 듣고자 노력했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당초 5월 1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잠시 중단하고 방역에 집중하는 등 실제 2달 만에 마무리되었다.

행사를 진행한 박계근 총무과장은 "지난 4월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하지만 시민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추가하고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넓은 공간을 찾아 권역별로 행사장소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방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행사 전 후로 장소에 대해 소독하고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광명동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하안동은 광명극장, 소하동은 광명시청소년수련관, 학온동은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등 동네에서 가장 큰 장소에서 진행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했다.

또한 원활한 비대면 진행을 위해 인터넷 회선을 추가 설치하기도 했다. 비대면으로 참여한 한 시민은 "현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새로운 경험이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까지 준비한 광명시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9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29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242건을 시정에 반영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다.

전순희/기자

성남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59개 과제 추진 • • • 1996억원 투입

성남시가 청년의 삶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996억원을 투입해 5개 정책분야의 59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온라인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첫 5개년 종합계획인 '성남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번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한다

성남시 19~34세 청년층 20만5487명(전체 인구의 22%)이 대상이다.

시는 일자리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추진해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일경험 사업과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등을 편다.

주거 분야는 10개 과제를 추진해 집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을 던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266가구, 창업과 주거시설을 결합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1059호를 마련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교육 분야 추진과제는 8개다. 시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전공살리기사업, 미래적응 인재양성 교육 등을 전개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복지·문화 분야 추진과제는 16개다. 시는 사회 첫발을 딛는 청년들을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을 한다. 청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년주간, 청년예술창작소도 운영한다.

참여·권리 분야는 8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책 결정에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청년 아이디어 제안 대회를 개최한다. 청년활동 공간인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는 신흥역 1호점에 이어 오는 7월 판교역에 2호점을 설치한다.

성남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59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군포시, 7월 1일 민선7기 3주년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콘서트

군포시 민선7기 3주년을 기념하는 토크콘서트가 7월 1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다.

군포시는 7월 1일 저녁 7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통콘서트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군포시 유튜브 라이브 채널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릴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군포를 열다'를 주제로 하는 소통콘서트는, 지난 3년간의 시정운영에 대한 한대희 시장의 소감과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에 이어, 한 시장과 시민 패널들간의 토크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온라인 참여 시민과의 실시간 질의·응답,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 전달 등이 예정돼 있으며, 지역청소년 동아리와 지역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공연 등도 마련됐다.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가 시민을 50명으로 제한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민선7기 지난 3년의 여정과 향후 시정운영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방향으로 이번 소통콘서트를 기획했다"며, "코로나19를 감안해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내실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장이 각 계각층 시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원종균/기자

이항진 여주시장, 과수화상병 피해현장 방문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19일 권병열 여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준 가남읍장 등과 함께 여주시 가남읍 과수화상병 피해 현장을 찾아 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과·배나무의 잎과 줄기를 고사시키는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마땅한 치료약이 없어 과수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피해농가는 화상병에 걸릴 경우 3년이 지나야 과수를 심을 수 있기에 막막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과수화상병은 확산속도가 빠른만큼 매몰작업을 조기에 마치고, 피해농가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에는 지난 6월 5일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현재 3농가가 매몰을 완료했고, 1농가가 매몰작업 중에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전직원이 관내 사과·배 과수원 129개소에 대한 합동예찰을 실시했고 매몰작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기술보급과에서는 매몰농가에 대한 대파작물 기술지도를 통해 이미 2농가가 오이, 콩, 금화교, 결명자를 식재 완료하여 영농을 계속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2021 마을 옛이야기 창작프로그램 '당신의 화성을 기록합니다' 이야기 공모 실시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은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마을 옛이야기 창작프로그램'의 이야기 공모를 운영한다.

'마을 옛이야기 창작프로그램'은 화성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여 화성시민의 삶과 역사를 담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책으로 발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서 책의 소재가 되는 이야기를 수집한다.

공모 주제는 '화성시와 관련한 개인의 일상과 경험을 담은 글'이다. 과거나 현재 화성시의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본인만의 이야기나 화성시에서 나고 자라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 자전적 이야기 등을 수집한다. 만약 스스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족(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있다면 대신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제출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신청시 '1인 1책 쓰기(자서전 연계 강좌 및 출판지원)'를 함께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응모 수는 제한이 없으며, 만 14세 이상의 화성시민 및 화성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집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개인 작품 창작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1인 1책 쓰기' 자서전 분야의 연계 강좌를 제공하여 작품 창작과 출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남주/기자

(재)안산시청소년재단, 2021년 청소년활동 욕구조사 실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은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1 안산시 청소년활동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8일 시작해 다음달 10일까지 이뤄지는 조사는 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재)안산시청소년재단 미래전략수립TF팀과 상록·단원청소년수련관의 예비청소년지도사 동아리 '청신호'와 '청온'이 주체가 돼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관내 청소년들의 행복 및 스트레스 실태조사와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시청소년재단 소속 시설 관련, 안산시청소년재단 홍보 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파악 등이 담겼으며, 조사 결과는 안산시청소년재단의 운영 방향성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예비청소년지도사 동아리 청신호와 청온은 조사 종료 후 오프라인 욕구조사 설문지 코딩작업에 참여하며, 미래전략수립 TF팀은 온·오프라인 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수치화한 결과자료를 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청소년재단 각 시설에 공유해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또한 안산시청소년협의회 소속 20여개 청소년 유관단체와 공유해 안산시청소년재단이 안산시 청소년 정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높일 전망이다.

부좌현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안산시 청소년활동 욕구조사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좋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안산시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문항은 연령별로 다르게 표현돼 응답율을 높였으며, 성실하게 응답한 300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고양시, 창릉천·샛말천 일원에 목교 보행데크 설치

시민 편의 위해 보행환경 개선

고양시는 덕양구 창릉천과 샛말천 일원의 보행단절에 따른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덕양구 동산동 375-2번지 일원에 횡단 보행데크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창릉천은 통일로에 위치한 덕수교 인근에서 지류천인 샛말천으로 나뉘는데, 창릉천과 샛말천 사이에 보행길이 단절돼 있었다.

때문에 시민들은 통일로를 횡단할 때 멀리 돌아가야 했고, 하천 산책로 이용에도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

이에 시는 동산동 주변 도로 및 교통 분야를 모니터링해 샛말천을 횡단하는 보행데크 설치를 추진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는 공사 과정에서 소하천 점용, 민원 처리 등 행정처리에 적극 나섰으며 사업 예산 절감에도 앞장섰다.

올해 6월 초 목교 보행데크 설치를 완료했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데크 설치 이후 삼송테크노밸리 쪽에서 e편한세상·스타필드·농협하나로마트 쪽으로 건너오기 위한 보행거리가 훨씬 단축됐다.

고양시 철도교통과장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 입주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수원시 권선구, 21일부터 경로당 141개소 개방

어르신 백신 맞고 경로당 오세요~

수원시 권선구는 2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171개소 경로당 중 개방 희망 시설 141개소 경로당을 운영 재개했다.

권선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로감 해소와 다가오는 폭염을 대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어르신에 한해 경로당을 개방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로당 운영 재개에 앞서 경로당 171개소에 방역소독을 완료했고, 경로당 감염관리책임자(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경로당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다.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경로당 내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다.

서경보 권선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재개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경로당 운영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정근/기자

부천시 원종사거리 일원 수도관(D700mm) 단수예정, 수계전환으로 수돗물 정상 공급

부천시는 원종사거리 일원 지하철 공사 추진에 따른 수도관(D700mm) 일부구간 이설을 위해 성곡사거리에서 오정농협사거리 구간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단수할 예정이나, 타 공급관로 수돗물 대체 공급을 통한 수계전환으로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계전환은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3단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수계전환을 통해 수돗물은 정상 공급되지만, 수계전환 시 오정동, 원종동 일원에 일시적 적수발생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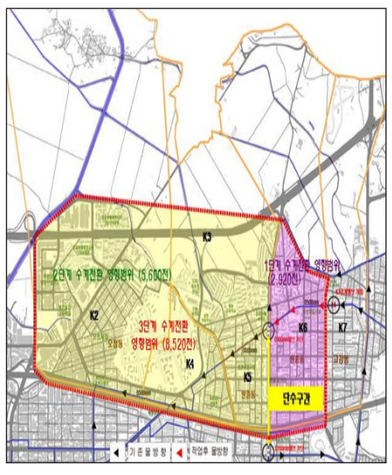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6월 26~27일 실시되는 1단계에는 원종동 일원, 28~29일 실시되는 2단계에는 오정동·원종동 일원, 7월 4~5일 실시되는 3단계에는 오정동·원종동 일원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고 유속변화 구간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사전 이토 및 소화전 방류와 실시간 현장 수질 모니터링 등의 선제적 조치로 적수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또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생수병 및 운반 급수차량을 대기시켜 비상급수를 확보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정시간 내에 수돗물이 정상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조효준 부천시 환경사업단장은"금번 수계전환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일시적인 적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수 발생 시 아파트, 학교 등 대수용가에서는 필요 시 유입밸브를 차단하여 주시고 일반수용가에서는 충분한 방류 후 사용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포천시, 홈 인테리어 일자리 창출사업 개소식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대진대학교 교수회관 2층에서 홈 인테리어 일자리 창출사업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하는 홈 인테리어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는 청장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장 맞춤형 전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가구 취·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으로, 주방가구 시공 설치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대진대학교 교수회관에 설치된 교육장에서 주방가구 시공 설치 이론 및 현장교육 등 4주 교육 후 가구기업 취업연계를 실시한다. 올해는 주방가구 교육으로 한정하고 향후 일반가구, 실내장식 등 홈 퍼니싱 전반의 교육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포천시 심창보 부시장은 "교육을 수료하면 가구기업 현장교육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평소 가구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장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포천시도 홈 인테리어 일자리 창출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여주시, 전국 최대 규모 케나프 숲 조성

여주시는 대신면 당남리섬에 전국 최대 규모의 케나프 숲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케나프는 아욱과 무궁화속 식물로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재배되는 세계 3대 섬유작물로,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육묘한 케나프 모종 15,000주를 관내 마을 30개소에 공급했다.

특히, 당남리섬에는 케나프 100,000㎡ 파종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케나프 숲을 조성했다. 당남리섬은 유채 34,000㎡, 라벤더 14,700㎡, 핑크뮬리 13,500㎡등이 식재 되어있으며, 연간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기술보급과 정건수 소득기술팀장은 "여주시의 당남리섬과 각 마을에서 재배되고 있는 케나프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크게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기술보급과에서는 케나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들과 기후위기 대응 현장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케나프의 효용성과 재배 확대, 수확 후 활용방안 및 경제성, 농특위와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공동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최정근/기자

동두천시, 동두천중앙고 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18일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동두천중앙고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국내 및 국외 사례들을 살펴봤으며, 실제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모여 조직한 협동조합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협동과 협력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임을 강조하고, 영리기업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다소 생소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협동과 협력·공유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해외 및 국내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대구시 건강의료산업 도약 이끌 '2021 메디엑스포 코리아' 준비 착착!

지역 의료기업 판로개척 및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엑스코 서관에서 개최된다.

'메디엑스포 코리아'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산업 전시회로서 ㈜엑스코, 대구의료관광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시치과의사회, 한국당뇨협회, 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의료기기, 병원, 치과, 한방, 제약 등 보건의료 전 분야를 망라하는 매머드급 행사로, 의료산업의 최신 정보와 최상의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포스트 팬데믹, 건강의료산업 Jump Up'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건강의료산업에 대한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업과 의료계의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반영한 'K-방역산업전'을 신규 런칭해 '제15회 대한민국 건강의료산업전', '제10회 대구국제의료관광전', '제20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2021 대구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와 함께 총 300개 사 700부스 규모로 개최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7개 의료단체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져 참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행사로는 의료기기 전시회 외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학술대회, 컨퍼런스,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코로나19 극복 사진·영상전, 의료관광인의 밤, 한약재 표본전시, 한의무료진료, 물리치료 체험 등이 개최되며, 참가업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건강의료산업전(K-방역산업전)'에서는 '척추·관절·재활특별관', '당뇨특별관', 'K-방역관' 등 다양한 특별관을 구성해 현대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질환과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방역분야에 대한 각종 의료기기 장비 및 용품들을 선보인다.

'대구국제의료관광전'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했던 D-방역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코로나19 극복 사진·영상전'이 개최될 예정이며, '의료관광 글로벌 컨퍼런스', 해외 의료관광 핵심 에이전시 초청 '온·오프라인 B2B상담회', '선도의료기관 팸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 한방, 건강도 한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에서는 국내 30여 개 기관·단체 80여 개 부스가 참가해 한의약산업 육성과 접근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의약산업 기술지원관'을 운영하며, 한의사회 및 한방병원에서 다양한 무료진료 및 체험행사도 개최한다.

'치과기자재 전시회'는 최신 치의학 정보교류와 치과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신제품을 홍보하는 지역 최대 치과행사로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 치과기업인 덴티스, 메가젠, 하이니스를 비롯해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이노바이오써지, 바텍, 포인트닉스, 세신정밀, 써지덴트 등 40여 개 업체, 110여 부스 규모로 첨단 치과의료기기와 치과 관련 제품 등의 전시와 국내 바이어들과의 만남의 장을 갖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해외바이어와 참가업체 간의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중동, 베트남, 중국 등 11개국 70여 개사가 참가하는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함께 중국 현지 상담장 3곳도 운영한다.

그 외에도 행사장 3층 회의실에서는 대구시치과의사회 주관으로 '대구국제치과 종합학술대회', '대구시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대구시약사학술제', '대구시간호사회 초청강연', '대구시물리치료사회 보수교육' 등 다양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 의료인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지역 보건의료단체가 함께하는 공동전시회는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전국에서 유일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의료산업과 관련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칠곡군-주한물자지원여단, '우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민간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새로운 한미동맹 모델 제시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숙원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결했던 칠곡군과 미군 부대 캠프 캐럴이 민간분야 중심의 교류 확대를 통해 새로운 한미동맹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칠곡군과 캠프 캐럴에 주둔 중인 주한미물자지원여단(MSC-K)은 지난 17일 호국평화기념관에서 백선기 칠곡군수와 주한미물자지원사령관 크리스토퍼 디 노(Christopher d. Noe) 대령이 참석한 가운데'우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기존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참여형 사업을 기획해 민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측은 안보 및 한국문화 체험,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 굿네이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관광·보훈 등의 다양한 분야로 소통과 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캠프캐럴은 주한미군의 병참부대로 1960년 5월부터 칠곡군 왜관읍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칠곡군과 캠프캐럴은 2014년부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 자고산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희생을 기리고자 2017년 한미우정의 공원을 조성하고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또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군과 가족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캠프캐럴은 60년간 왜관읍 이미지와 경관을 훼손해온 부대 담장의 녹슨 원형 철조망을 미군 자체 예산으로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직선 형태의 신형 철조망으로 교체하는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로 화답했다.

이와 더불어 △영어캠프 운영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 군 장비 전시 및 부스 운영 △지역 학생 장학금 전달 △독거노인 지원 △김장봉사 △환경정비활동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크리스토퍼 디 노 사령관은"그동안 주한물자지원여단과 칠곡군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미친선관계의 롤모델로 자리매김 했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백 군수는"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주축"이라며"이번 협약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초석이 되고 민간 분야 중심의 새로운 동반 성장 모델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그동안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며 상생의 길을 걸어왔다"며"앞으로도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양측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2021년 경주페이 국·도비 예산 작년 대비 3배 증가해

올해 경주페이 890억원 발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로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 기대

경주시는 코로나 위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하반기 예산 61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산은 국비 36억 6000만원(60%), 도비 7억 3200만원(12%), 시비 17억 800만원(28%) 등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경주시는 상반기에 확보한 28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89억원의 경주페이 지원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 30억원보다 196%나 늘어난 수치로 경북도 평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증가율이 35%임을 감안하면 큰 성과로 평가된다.

경주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890억원의 경주페이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 경제정책과는 국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을 요청해 왔으며, 주낙영 시장 또한 관련부처에 경주페이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발행된 '경주페이'는 지역 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특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사용금액의 10%를 캐시백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올해 5월에 출시된 '경주시 공공배달앱-달달'에서도 경주페이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경주페이 업종별 사용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22%), 소매점(17%), 주유소(10%), 병원·약국(9%), 학원(7%) 등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31%), 50대(25%), 30대(19%), 60대 이상(14%), 20대(9%), 10대(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반식/기자

'경북 투어마스터 체험상품' 국내 최대 오픈마켓에서 판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체험관광 콘텐츠 공모전에 선정된'경북투어마스터 체험상품'과 KTX-이음을 연계한'경북여행 결합상품 기획전'을 6. 21일 ~ 7. 4일 까지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G마켓을 통해 판매한다.

경북 투어마스터는 경북에 숨겨진 체험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기획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침체되어있는 경북지역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판매되는 KTX-이음연계 패키지 상품으로는 묵계서원을 중심으로 보물 찾기를 하는 이색 체험인 '트레저 헌터',젊은 MZ세대의 성지가 된 월영교에서 즐길 수 있는 최신 IT기술과 감성을 더한'야간 문보트 체험', 신라의 음식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풍월주의 50찬 체험','용계리 은행나무 오찬','안동명인 소주체험','안동 재래시장 탐방','청량산 트래킹'과 같은 경북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문화/전통/음식/체험과 · 숙박이 결합된 상품을 선보여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투어마스터와 KTX이음 연계상품을 통해 경북을 찾는 관광객이 보다 특별한 여행을 경험 할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여 언택트(Untact) 시대에 경북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영주시, "아빠랑 숲에서 힐링하고 왔어요~"

경북 영주시는 지난 19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제2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의 숲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아빠육아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제2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의 첫 번째 행사로 진행된 이날 숲 탐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2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산림치유지도사의 진행 하에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 숲 속을 걸으며 미션을 수행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빠 이씨(41)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 많이 답답했는데 숲에서 아이와 함께 자연을 몸으로 느끼는 힐링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소통하며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자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더 나아가 가정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아빠의 육아참여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화조성을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은 지난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부모교육 및 놀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육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양육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기현/기자

'경산사랑(愛)카드' 7월 1일부터 인센티브 지급률 6% · 10% 상향

월 70만원 충전시 7만원 혜택! 연 700만원까지 충전 가능!

경산시는 지역자금의 관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산사랑(愛)카드』인센티브 지급률을 7월 1일부터 6%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하였다.

지난 2개월간(5월, 6월)은 예산부족으로 6%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나 적극적인 국비예산 확보로 7월부터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 지급하기로 하였다.

경산사랑(愛)카드 사업은 금년도 6월 중순까지 발행규모 290억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443억원을 발행하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다.

경산사랑(愛)카드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스마트폰 앱 '그리고'를 통해, 오프라인은 34개소 판매대행점에서 카드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카드 최소 충전금액은 5만원 이상 가능하며, 개인별 인센티브는 1인당 월 70만원, 연 700만원 이내이다.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관내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규모 점포(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을 제한해 도입 취지를 살렸다.

최영조 경산시장은"경산사랑(愛)카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 지급과 소득공제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박형준 시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위해 파리로!

세계최대 규모 스타트업 캠퍼스 Station F, 글로벌기업 LVMH 방문, 디지털뉴딜 스타트업

박형준 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발한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1박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정부대표단과 함께 파리에 있는 국제박람회기구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범정부 유치기획단장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부 대표단도 함께 할 예정이다.

유치신청서는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 형식으로 제출되며, 대한민국이 구상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요와 개최도시 부산의 소개, 정부의 개최 의지 등을 담는다.

유치신청서 제출은 현지 시간으로 6월 23일 오전 11시에 국제박람회기구에 방문하여 공식 제출하게 되며, 신청서 제출과 함께 국제박람회기구의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면담을 통해 박형준 시장은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유치의지를 표명하고,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의 부산의 강점과 매력, 부산시민의 개최 열망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대표로 자리한 유명희 범정부 유치기획단장은 대한민국의 개최역량과 당위성, 범국가 차원의 유치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국제박람회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현장에는 유대종 주프랑스 대사도 동석할 예정이다. 국제박람회기구가 있는 곳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16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펼쳐질 해외교섭 활동에 주프랑스 대사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을 위한 이번 파리 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이다. 취임 이후 당면한 시정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유치신청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1박4일의 최소한의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박시장은 일정을 쪼개어 경제 일정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파리 도착일인 6월 22일에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알려진 'Station F'를 방문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 관련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크리에이티브밸리 얀 고즐란 대표와 만나, 그동안의 파트너십을 점검하고, 향후 디지털뉴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협력방안 및 부산-프랑스 스타트업간 교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글로벌 최대 럭셔리그룹 LVMH(Louis Vuitton Moet Hennessy)를 방문, Jean Baptiste Voisin 최고전략 책임자 등 관계자를 만난다. LVMH 그룹은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유통기업으로 관련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에도 앞서가고 있다. LVMH에서는 부산의 관련 벤처기업과 LVMH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월 23일 오후에는 파리특파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에 대한 소회와 시정철학 및 비전에 대한 해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프랑스 상원의원인 외교국방위원장을 만나 부산의 도시외교와 UN, 보훈정책 등에 대한 교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개최도시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개최도시의 강력한 유치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올 것이다"라며, 향후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은 물론, 홍보 메이커가 되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다하고 오겠다." 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 (WFZO) 온라인 연례회의 참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이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 World Free Zones Organization) 2021년 연례회의(AICE :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에 참가한다.

"안전 준수를 통한 발전동력, 경제자유구역(Free Zones : Engine of Safety and Compliance)"을 주제로 진행되는 2021년 연례회의는 제7회 연례회의로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 연례회의는 지난 2015년 제1회 두바이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향해"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된 이후 2020년 제6회까지 콜롬비아, 스페인, 두바이 등에서 매년 진행되었다.

올해 연례회의는 6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24일까지 4일 동안 매일 잰 호프만(Jan Hoffman) 유엔무역개발회(UNCTAD) 선임행정관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토론, 유럽·아시아·아프리카·중동·미주 지역별 웨비나*와 온라인 홍보관이 운영된다.

이번 회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5월 회원 가입 후 처음으로 참가하는 연례회의로 온라인 홍보관을 통해 수소 도시 울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4일간의 연례회의 기간 중 지역별 전 세계 지역별 웨비나도 동시에 개최된다.

첫날인 22일에는 중동·북아프리카 웨비나, 둘째날인 23일에는 유럽 웨비나, 셋째날인 23일에는 아프리카·미주 웨비나, 마지막날에는 아시아 웨비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아시아 웨비나에는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발표자로 참가하게 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연례회의(AICE 2021)의 온라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운영, 웨비나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해외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에너지허브 도시 울산, 수소 선도도시 울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하동군, 사회적경제 공동체'마을공방 두니'오픈

하동군은 지난 주말 행정안전부 마을공방육성사업으로 악양면 소축마을에 조성된 '마을공방 두니' 오픈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마을공방육성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소통·협업하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주민 행복 증진을 도모하는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을공방 두니는 2019년 소축마을 주민이 지역 예술단체 겸 사회적기업인 구름마와 교류하는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았다.

마을공방 두니는 마을 주민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있는 폐교 옛 축지초등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해 식물공방, 책공방, 카페, 농특산물판매장, 유튜브 방송실, 공유공간, 전시실로 운영될 예정이다.

악양면 축지리 대축·소축마을은 대봉감 정보화마을로 알려져 있으며 마을 이름의 유래를 따서 대축마을의 '큰 둔이', 소축마을의 '작은 둔이'를 발음하기 쉬게 '두니'로 공방 이름을 정했다.

이날 오픈식은 사전 신청을 받아 '100원 체험 이벤트'를 두 차례 진행한 후 주민과 마을공방 두니와의 상견례로 진행됐다.

장창호 마을이장은 "점점 고령화하는 농촌 마을에 마을공방 두니를 거점으로 사회적기업인 구름마와 함께 지역 활성화가 되도록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김해시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전담 카카오톡 채널 운영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에서는 기존의 김해시보건소 채널 외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전담 카카오톡 채널을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SNS를 사용하고 있는 김해시민 누구나 시간·공간제약 없이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건강정보와 1:1 카카오톡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한 환경에서 자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한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신체활동, 영양, 금연, 모바일케어사업이 해당되며 걷기운동정보, 신체활동교육 동영상, 금연교육자료, 금연구역 및 과태료안내,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영양·비만예방 자료, 워크온앱 활용 등 다양하고 건강관리에 유익한 자료 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과 행사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

카카오톡에서 "김해시보건소 건강관리팀"으로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면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교육 및 정보를 제공 받고, 동 채널에서 운영하는 1:1상담(평일 10:00~17:00)을 통해 건강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전문채널 운영으로 우리시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회적 상황에서 안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규칙적이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사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추진

사천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 외곽 경계 지점 12개소에 총 13대의 단속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6월 중으로 추진계획 수립과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7월에는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2021년 6월말 기준 6천대로 전체 등록차량 5만8천대의 약 10%에 이른다.

사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부산교육청, 7월 16일 벡스코서 '2021 대입상담캠프' 개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새로운 미래, 내 꿈의 여정'이라는 슬로건으로 2021 대입상담캠프 개막식을 갖고 17일까지 이틀간 행사에 들어간다.

이 캠프는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대학별, 전형별 생생한 대입정보와 맞춤형 1대1 대입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에 여는 대입상담캠프는 4개의 주제관 아래 62개 부스, 대면상담창구 40개, 설명회관 6개를 운영한다. 또한 부산지역대학, 서울주요대학, 이공계특성화대학 등 63개 전국 주요대학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풍성한 대입정보와 상세한 대입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4개 주제관은 2022 수시모집을 눈앞에 두고 실질적인 대입정보 안내와 맞춤형 대입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관은 △62개 전국주요대학 입학처 관계자가 직접 수시모집전형을 안내하는 대학정보관 △부산진학지원단 상담교사단이 2022학년도 수시전형대비 대면상담을 하는 대면상담관 △45개 대학의 입시설명회가 진행되는 대입설명회관 △교사대상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특강을 운영하는 학생부종합관 등이다.

대면상담관 참가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모의평가 또는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자기소개서 작성 초안 등을 지참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입상담캠프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전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대학별 참여현황, 세부계획, 사전신청 방법 등은 6월 22일부터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성욱 부산미래교육원장은 "이번 대입상담캠프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맞춤형 대입정보와 수시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며"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생생한 대입정보를 한자리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대학입학처 관계자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직접 들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진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청렴연수 실시

진주교육지원청은 21일 대강당에서 학교급식 영양(교)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청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운영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강사 김광옥 교수(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코로나 일상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종사자 생활방역 수칙과 식중독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청렴 연수는 '찾아가는 소통공감 간담회 및 대면토크 '를 통해 알게 된 납품업체와 영양(교)사 서로의 고충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박영주 교육장은 "코로나 19로 급식일정의 잦은 변동과 방역활동 강화로 급식현장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더워지는 여름을 앞두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전북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도상훈련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전라북도 18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최훈 행정부지사 주재로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훈련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육군 제35보병사단, 전주기상지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 홍수통제소 등 도내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 최만림 재난대응정책관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보탰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영상회의를 통해 회의를 참관하였다.

이날 훈련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도내 21개의 저수지 붕괴가 발생하여 저수지 붕괴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고자 익산시 왕궁저수지 붕괴를 가정,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에 따른 기관별 대처상황 등에 대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상황은 18일 익산시에 호우경보, 완주군 호우주의보 등 호우 특보를 발표로 비상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단계를 상향하는 등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가상의 상황을 부여하여 도 협업부서(13개), 유관기관(10개) 별로 단계별 준비상황 및 대처상황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실시한 도상훈련을 통해 도 협업부서, 유관 기관별 역할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실제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갖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름철 역대급 집중호우로 도내 4명의 인명피해와 1,3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유관 기관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먼저 전북도는 올해 여름철 풍수해(호우, 태풍) 대책 기간을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5개월) 설정하여 24시간 상황근무와 5단계 상황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3단계 근무 기준을 강화하는 등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도 수정하였다.

지난해 수해 피해 지역은 우기철 이전인 6월 말까지 91% 완공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취약지역을 지난해 대비 40% 추가 발굴하며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방침이며,

도내 배수펌프장(118개) 및 우수저류시설(15개)의 가동상태를 전수점검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예방할 예정이다.

풍수해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의 준비상태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와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등 풍수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대비 자체 비상근무 기준을 확립하고, 도내 풍수해 재난 발생시 인력·장비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특히,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도내 섬진강댐의 경우 홍수위 제한수위 하향(△2.5m) 및 수문방류 사전예고제(3시간 前→1~2일 前)를 개선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우기전 사전 해소할 방침이다.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오늘 모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여름철 재난대응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하고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소통,교류를 통하여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 복구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하였다.

김송일/기자

익산시 정헌율 시장, 지역 현안 해결 정치권 소통 '강화'

정헌율 시장이 전북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지역 현안문제를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지난 18일 익산역장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회의원, 임석삼 국민의힘 익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2단계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232만㎡ 규모로 조성된 1단계 산업단지는 현재 70% 가까이 분양이 완료되며 국내 식품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로서 입주 희망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고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단계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 시장은"1단계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됐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2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며"국가 차원에서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평택과 부여, 익산, 울산까지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부여~익산 구간 동시 착공을 요청했다.

현재 평택-부여 구간은 1차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착공됐으며 부여~익산 구간은 오는 2029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부여~익산 구간은 분산돼 있는 익산 산업단지를 연결해 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익산 산업단지는 3곳으로 면적은 339만여㎡에 달한다.

정헌율 시장은"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 동시 착공은 익산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다"며"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이준석 대표를 보며 청년들을 적극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청년들의 에너지를 담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청년정책들을 새롭게 더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익산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임실봉황인재학당, 높은 만족도에 추가모집 열기'후끈'

하반기 수강생 추가선발 모집에 경쟁률 5.1 대 1 기록

임실봉황인재학당의 양질의 교육시스템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전학 등 결원에 따른 추가모집 접수를 받은 결과 8명 선발에 41명이 지원하면서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봉황인재학당은 지난해 12월 2021년도 입학생 150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이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수강을 포기한 학생들이 있어, 지난해 모집 때 안타깝게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추가선발 접수가 이뤄졌는데 첫날부터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

이는 지난해 추가선발 경쟁률인 3.5 대 1보다 1.6배 오른 수치로 봉황인재학당에 대한 학부모들의 학업 신뢰도와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가 입학생은 봉황인재학당에서 치러지는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으로 오는 22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수업은 내달 5일에 시작되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교시 수업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내신 대비 특강으로 과학, 역사 과목을 진행한다.

공부법 특강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임실봉황인재학당에서는 하반기 학원위탁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도 마쳤다.

접수 결과 관내 초등학생 40명과 중학생 67명을 포함한 총 107명 선발에 158명이 모여 임실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학원위탁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정 학생과 임실봉황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차순위 학생들을 비롯한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이다.

합격자는 면밀한 서류검토를 통해 오는 23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발된 수강생은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관내 보습·예능학원에서 중학생은 국어·수학·영어, 초등학생은 미술·음악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위탁 수업을 받게 된다.

임실봉황인재학당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과 학원위탁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초·중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한 봉황인재학당이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과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지역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황인재학당 및 학원위탁 프로그램 합격 결과는 임실군 홈페이지 임실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봉황인재학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하은/기자

완주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수소특화 국가산단 대선공약 반영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완주군이 건의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당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예정 부지에서 열린 '수소산업 관련 청년 창업자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완주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12일) 이후 첫 지역 현장방문 일정으로 새만금방조제 준공 기념탑과 ㈜명신 군산공장을 찾은 뒤 현대차 공장과 일진하이솔루스(주),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 등 완주지역 수소산업 현장을 둘러본 후 진행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 대표의 방문을 환영한 후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과 수소 전주기(全周期) 밸류체인이 구축된 수소 시범도시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달라"며 "국민의힘이 힘차게 밀어 달라"고 강하게 건의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에는 현대차와 일진하이솔루스 등 약 40여 개의 관련기업과 KIST 전북분원 등 7개소의 연구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다"며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모든 주기의 산업군이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대선공약으로) 지원해 주면 전 세계 수소산업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어 "완주군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과 수송 분야의 친환경 상용차, 수소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연료전지 사용 등과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경우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섹터 커플링'은 수소 생산(새만금)과 수송(현대차), 주거(수소 시범도시) 등으로 이뤄진 부문간 연계를 통해 신산업과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여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섹터 커플링'을 완성할 수 있다는 박 군수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완주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저희가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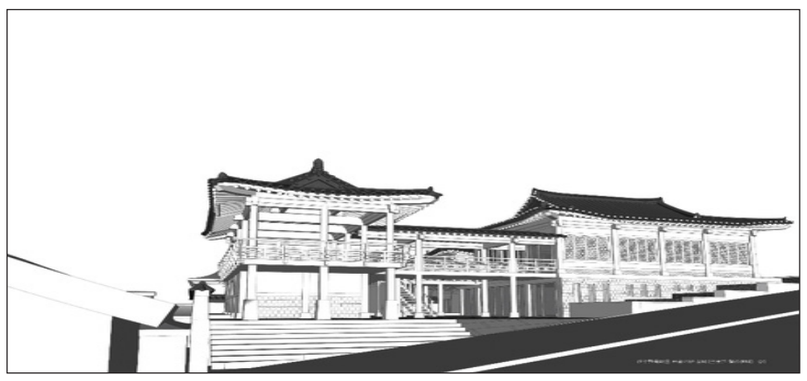
이 대표는 또 청년 창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 말미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가 가능하도록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9년 말에 국토부로부터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돼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와 열을 408세대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또 수소 생산기지에서 수소충전소까지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소버스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통과 인프라 관리, 특화기술까지 연계하는 '수소사회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광수/기자

전주시 글로벌 웰컴센터, 한옥 형태 밑그림 나왔다

시, 18일 한옥마을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알릴 '글로벌 웰컴센터'의 한옥 형태 밑그림이 나왔다.

전주시는 18일 한옥마을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한옥마을 오목대 인근에 들어서는 '글로벌 웰컴센터'는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설계공모는 어떤 식으로 공간을 구축해야 효율적으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한옥마을 전망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결정하고자 진행됐다.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배치계획의 적합성과 기린대로 및 태조로와의 접근성, 공간활용 및 동선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선작과 계약절차 이행 후 다음 달 설계용역에 착수해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연내 착공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글로벌 웰컴센터는 총 사업비 65억 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582㎡, 연면적 약 480㎡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관광안내소 공간과 관광객 휴게 공간, 야외 전망대(누마루) 등이 조성되며, 지하 1층에는 스마트관광체험 공간과 전시·홍보 공간 등이 마련된다. 이곳에는 외국어 능력이 있는 관광해설사들이 배치돼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 글로벌 웰컴센터에는 전주의 전통문화 가치를 중심으로 4차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해 건립될 예정"이라며 "향후 전주한옥마을은 물론, 전주시 전역, 나아가 전북 광역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김영록 지사, "곡성, 근교형 내륙관광 중심 도약"

전남도, 최근 4년간 섬진강기차마을 등에 국·도비 4천830억 지원

전라남도가 섬진강 굽이굽이 생태가 살아있는 곡성군을 근교형 내륙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호남고속도로 연결망 확충,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 활성화 및 시설 개선사업,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정해박해 평화 순례길 조성, 곡성소방서 신설, 멜론·토란 등 농업 6차산업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국·도비 지원액만 20여 사업에 4천820억 원에 이른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자연 속 가족마을' 곡성을 근교관광 거점도시이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4일 김 지사의 곡성군 도민과의 대화를 즈음해 전남도와 곡성군의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석곡IC~겸면 국도 시설 개량해 접근성 제고-

-섬진강 기차마을 중심 체험관광 클러스터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해 가공유통 활성화-

전남도는 광주, 순천, 남원 등 대·중소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관광 및 농수축산물 수요가 많은 곡성을 근교형 관광과 농업 6차산업화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9년간 1천268억 원을 들여 석곡IC~겸면 국도 27호선 시설을 개량, 호남고속도로와 곡성지역 연결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야간경관 100선에 선정된 섬진강기차마을의 관광 활성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58억 원을 들여 만남의 광장과 어린이 물 체험장 등을 조성, 주변 시설과 연계해 관광 클러스터화할 계획이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지난 1998년 전라선 철도 이전에 따라 남겨진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시설이다.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성장했다.

인근에는 2022년까지 5년간 95억 원을 들여 동화적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섬진강 동화정원을 조성한다. 동화 이야기숲, 이야기 미디어존, 동화숲 길 등을 갖춰 동화 테마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추억여행을 선사할 방침이다.

1827년 정해박해 진원지로서 평화순례길도 조성한다. 정해박해는 신유박해(1801년) 이후 지방으로 피신한 교우들을 박해한 사건이다. 곡성에서 시작해 경북 상주, 충청도와 서울 일부까지 파급됐다. 2023년까지 121억 원을 들여 오곡면 승법리 가마터를 중심으로 주변을 유적화하고, 곡성성당과 함께 주변 일대를 천주교 성지 순례 코스로 연결한다.

폐교를 활용한 주민밀착형 문화공간이자 관광객과 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인 '곡성군 스테이션 1928'도 추진한다.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문화플랫폼으로, 사업 대상지인 오곡초가 개교한 1928년을 조합한 발상이다. 2022년까지 3년간 120억 원을 들여 폐교를 숙박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지역특화자원 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인생학교, 농촌학교, 미디어학교 등을 운영함으로써 교육도시 면모도 갖추게 된다.

죽곡면 인성원 주변엔 2023년까지 3년간 55억 원을 들여 스카이캐빈 13동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체험관광자원을 조성한다. 인근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곡성지역 경제를 이끌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국 1위 곡성토란', '곡성 멜론 6차산업화', '곡성 백세미' 등 농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곡성읍 신월리 일원에 2022년까지 2년간 33억 원을 들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한다. HACCP 시설 등으로 농산물과 가공제품을 상품화하고 농업인 창업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가공·유통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소방서 신설 추진·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전남도는 또 곡성에 393억 원을 들여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을 구축했다. 고압 직류기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안전성, 신뢰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직류 전용 전주기 시험평가 설비를 갖췄다. 오는 2027년까지 직류기기 세계시장은 484억 달러(56조 원), 국내시장은 2025년까지 3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세계시장 진출을 곡성에서 주도하게 됐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한전과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에너지밸리와 연계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석곡에서 살면 돼지 Reborn 1973'을 2024년까지 5년간 127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인근 고속도로 개통 전 왕성했던 1973년으로의 복고를 꿈꾸고 있다. 돌실마을 테마로 집 수리 지원, 목수학교 운영, 생활SOC 확충을, 왁자지껄한 돌실장터 테마로 상인대학, 흑돼지 상품 개발을, 돌실어울림 테마로 현장지원센터 운영, 대황강 산책로 조성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지역 환경과 소방수요 변화에 따른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 및 소방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해 곡성소방서 신설을 추진, 현재 군과 부지 확보를 협의 중이며 사업예산 확보에 온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 건의해 1천140억 원의 복구비를 확보, 항구 복구를 뒷받침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곡성은 섬진강과 대황강 굽이굽이 자연 생태 자원이 훌륭하고,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섬진강 기차마을이 관광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다 KTX가 연결돼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에 있다"며 "편리한 교통 여건을 활용해 근교형 내륙관광과 농업 6차산업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지사

광산구, 걷기·가드닝으로 청년 활력 충전

'2035 함께 한길' 행사 열려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난 19일 신창동 용수어린이공원에서 걷기 운동과 마을가드닝을 병행하며 청년들의 활력을 증진하는 '2035 함께 한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 청년걷기 매니저, 청년가드너, 신창동 걷기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2035 함께 한길' 행사는 코로나19, 취업난으로 지친 청년들이 걷기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마을 유휴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는 가드닝 활동으로 활력 공간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2035'는 청년을 의미한다. 지난해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년 나이(만 19~34세)를 고려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첫 테마는 ▲함께 걷길 광산이다. 지난달 23일 양성한 청년 걷기매니저들과 신창동 주민 걷기지도자들이 신창동 반월마을과 영산강 산책로, 역사문화공원을 잇는 '걷기 좋은 길'을 따라 걸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신창동 공방의 거리 인근 포토존에서는 치유·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목수국 등을 심는 ▲함께 심(心)길 광산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함께 한길 광산에선 걷기를 끝내고 출발지로 돌아온 청년, 주민들이 공원 인근에 마련된 가드닝 공간에 구절초, 세이지 등을 심고 '2035 함께 한길' 1호 푯말을 세웠다.

광산구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소통하고 활동하며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청년이 걷기 좋은 길을 찾아 '2035 함께 한길'을 3호까지 확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장흥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간담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18일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지역사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아동친화도시 조성 간담회에는 장흥초등학교 교직원, 초등돌봄센터 사회협동조합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 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시스템 구축, 초등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장흥군은 2021년 아동친화도시 원년을 맞아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공직자, 아동시설 종사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시학습, 읍면 이장회의, 초중등학교 수업 등 전 군민들이 아동권리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장길/기자

곡성군,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서비스 선보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로 곡성여행이 쉬워졌다.

곡성군이 지역 관광 정보를 전자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는 별도의 앱(App) 설치가 필요 없다. 스마트폰을 통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곡성전자지도'라고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곡성군 스마트 관광전자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관광지, 문화유산, 축제·행사 일정, 식당, 숙박시설 등이다. 또 GPS를 연동한 관광객 위치 표시, 카카오 및 T맵 내비게이션 연계를 통한 길안내 서비스,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예매 사이트 연결도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터치를 통해 분야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변경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똑똑한 맞춤 여행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광전자지도는 종이 지도의 불편함 없이 핸드폰 하나로 곡성의 숨은 관광지를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곡성 여행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스탬프 투어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남출.최상홍/기자

충주시, 생활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 실시

오는 25일까지 실험단과 실천단 각각 모집, 생활 쓰레기 감량 이벤트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급증한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생활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1인 가구, 5인 이상 다인 가구 등 다양한 세대의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실험단과 실천단을 각각 모집해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먼저, 실험단을 통해 일반 가정에서 1인당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의 발생량을 확인하고, 감량 목표량을 파악해 실천단이 감량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이다.

실험단과 실천단에 선정되면 자원순환 키트(재활용 분리배출함, 장바구니, 텀블러, 다회용기 등)를 제공해 시민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관련 서적을 제공해 생활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험단 및 실천단 참여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사)자원순환 환경센터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라며, "생활 쓰레기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적극 지원하는 만큼 충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자원순환환경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만식/기자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강원도가 동행" 한다!

도내 30여 개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릴레이 동행 세일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6. 24 ~ 7. 11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한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6. 22 ~ 7. 15까지 24일간 도내 소비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디지털 소비촉진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원마트에서는 강원세일페스타와 연계해 '강행세일'* 을 추진한다. 최대 30% 할인 및 다양한 경품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10개 시·군 대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동행세일에 동참한다.

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강원곳간'에서도 할인 프로모션 및 택배비를 무료 지원하며, 인빌 쇼핑에서는 4개 정보화마을 18개 품목(찰옥수수, 쌀 등)에 대해서도 15~25% 특별할인과 배송비를 무료 지원한다.

또한 6. 28 ~ 7. 4까지 7일간 대형 온라인 플랫폼(옥션)을 통해 도내 9개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기획전 [동행세일 랜선 전국 투어!

지역 특화상품 집콕쇼핑특가] 이 추진되며, G마켓에서는 6. 21 ~ 7. 11까지, 쿠팡은 6~7월말까지, 11번가·티몬·위메프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도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한다.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도 도내 6개 중소기업 제품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 이효석 생가를 주배경으로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며, 그 중 참기름을 생산하는 업체인 '서원당'은 산지 라이브 방송으로 제조 공정을 담아 현장감과 생동감을 한껏 살릴 예정이다.

강원도내 30여 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릴레이 동행세일도 눈여겨 볼만하다.

네이버 쇼핑라이브 및 강원장터 TV에서 6. 22 ~ 7. 15까지 4주간 화·목요일 18~19시에 전통시장·소

상공인 라이브커머스를 8회 방송하며 최대 20% 할인하여 판매한다.

또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장보기를 한 경우 4만원 당 1만원 시장이용 쿠폰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춘천지하상가 상점가를 비롯 총 8개 시장에서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동행 세일기간 동안 시장주변 도로 일부 구역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에서는 가입자 대상 할인쿠폰 발행 이벤트를 진행하며, 모바일 강원상품권도 발행한도를 100억 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므로 강원마트, 강원곳간, 일단시켜(배달앱) 등에서 사용하여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道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동행세일」을 매개로 강원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강원도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의 모든 온라인 쇼핑 등의 역량을 동원해 세일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도내 경기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예산군 추사고택, 추사의 마지막 명필 봉은사 '판전' 현판 탁본 기증받아

한국서예금석문화연구소 한상봉 씨 기증

예산군 추사고택은 한국서예금석문화연구소 한상봉 씨로부터 봉은사(奉恩寺) '판전(板殿)' 현판(懸板) 탁본(拓本) 1점을 기증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추사고택은 현판 탁본을 기증한 한상봉 씨에게 기증서를 전달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25호인 봉은사 판전은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자 단층 맞배집 목조건축물로 고건축이 주는 멋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선생의 현판 덕분에 더 빛이 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사 선생은 생애 전반에 걸쳐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그 중에서도 봉은사 '판전(板殿)' 현판은 추사 선생의 생애 끝자락에 쓴 글씨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봉은사 판전 현판은 추사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쓴 것으로 화려한 기교를 버리고 드러난 절제된 소박함에서 '궁극의 멋'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판 마지막에는 '칠십일과 병중작(七十一果 病中作)'이라고 쓰여 있으며 이는 '71세 된 과천사람이 병중에 쓴다'는 의미다.

추사고택 관계자는 "2018년 7월 봉은사 판전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향후 탁본 진행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며 "기증 자료는 향후 연구 자료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보령시, 뮤지컬 영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구강관리 시청각 교육

보령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역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2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보령지역 아동의 건강 실태조사 결과 충치를 경험한 아동이 전국(56.4%) 대비 10.2% 높은 수치(64.8%)를 기록해 학령기 아동의 치아 우식 사전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학교별 수업시간을 활용한 뮤지컬 영상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며,'유·아동 구강건강교육 세균치과'라는 주제로 치아가 썩게 되는 원리, 단음식·탄산음료가 치아에 좋지않은 이유, 올바른 양치질·치실 사용방법, 성장기의 치아관리가 성인이 된 후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지난 15일 대천초등학교와 외연도초등학교에서 첫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9월 17일까지 대천동대초·대관초·명천초 등 21개 학교 2915명의 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아동들에게 초기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구강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서산시, 생생! 2회차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실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이색체험 기회 제공

서산시가 6월 20일 관내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 생생! 사회적경제기업 탐방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홍보 및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서산시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탐방도 참가자 모집이 조기에 마감되어 프로그램의 인기를 재차 실감할 수 있었다며, 탐방 대상 마을기업인 서산다님길협동조합(동문동)의 원목 다용도 박스 공예, 라탄 연필꽂이 공예 체험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끄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은 "탐방 행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한 나눔·협동·상생의 사회적 가치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가치확산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산시는 올해 생생! 사회적경제기업 탐방을 하반기에 2회 더 운영할 계획이다.

최재은/기자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주요 시범사업장 점검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작물재배 현장 컨설팅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사전에 공유하고, 2022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시범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오는 2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시범사업장 등 모두 14개 주요 시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농업인 애로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작물재배 현장 종합컨설팅 등을 실시해 시범농가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홍은표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와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보완 하겠다"며"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 기술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의정부 가능초등학교, 제50회 전국소년체전 (전국종별핸드볼) 여자 초등부 우승

의정부교육지원청 가능초등학교는 2021년 6월 17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개최된 제50회 전국소년체전(전국종별핸드볼)에서 여자 초등부 우승을 차지하였다.

40년 전통에 많은 국가대표를 키워낸 가능초등학교 여자 핸드볼부는 10년전 우승을 마지막으로 각종 대회 우승 실적이 없었으나 2018년 김소영 코치가 부임해 오면서 가능초등학교 여자 핸드볼부 부흥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2019년 소년체전에서 8강에 오르고,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태백산기에 참가하여 3위에 입상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금번 2021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컵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학생들과 한마음으로 훈련에 참가하였다.

12일 예선전 첫게임에서 사수초등학교와 근소하게 앞서가다 종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점을 허용하고 역전의 위기까지 경험하면서 무승부(16:16)를 기록한 후에 가능초등학교 여자 핸드볼부는 더 단단해져서 두 번째 게임에서 의기투합한 결과 40분 경기에서 47득점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면서 선수단은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4강전에서 다시 만난 사수초등학교와의 게임에서는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여 완승(20대13)을 거두면서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여자 핸드볼부의 전통 강자인 대전 유천초등학교를 만나서도 주눅들지 않고 게임에 임하여 압도적인 승리(28대15)를 거두게 되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문상열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 훈련하느라 많이 힘들었을텐데 묵묵히 훈련에 성실히 임해준 선수와 지도하느라 애쓰신 김소영 코치께 고마움을 전한다. 박홍석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문살열 감독과 김소영 코치는 지도자 상을 받았다.

가능초 주장 김가연 학생은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우승해서 행복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 한번 더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조민채 학생은 "여태까지 했던 노력들을 보상받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박홍석 교장은"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능초 핸드볼부가 이번 전국소년체전 우승을 계기로 다시 한번 명실상부한 전국 최강의 명문팀으로 자리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10여년 만에 전국소년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13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가능초 핸드볼부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총동창회 및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시체육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영기/기자

무주군, 농촌협약 공모 선정 살맛나는 무주건설 탄력

무주군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국비300억 원을 확보, 살맛나는 무주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공동투자를 함으로써 농촌 정주권 기반을 창출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군은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됐다.

군은 오는 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지원조직 가동 등 역량을 집중해 왔다.

또 농촌협약지원센터 설립과 실무회의, 민관 거버넌스 포럼, 전문가 등을 진행하면서 농촌협약 공모 준비에 열정을 쏟았다.

지난달 17일에는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농촌협약 공모사업 막바지 준비를 위한 농촌협약위원회를 열고 공모 선정에 관련된 체계적인 활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군이 농식품부에 제시한 비전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지표 실현을 위한 '365생활 거점 도시 무주! REBORN!'이다.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어디서든 편리한 생활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내년부터는 30분내 보건 교육 기초 생활서비스가 해결되고 60분내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무주군은 향후 5년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유휴시설 창업 지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기를 띄우고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이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뭄에 단비처럼 우리 무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살맛나는 무주!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라며 선정을 해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동안 애써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농촌협약 선정으로 놀라운 지역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5년 동안 군민과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전국적 선도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주군은 '농촌협약' 공동사업 시행자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계획을 신중히 협의 ·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농촌협약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정우/기자

KLPGA 2021 톨비스트-휘닉스CC 드림투어 7차전] 구래현, 생애 첫 우승 달성!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휘닉스 컨트리클럽(파72/6,332야드) 마운틴(OUT), 레이크(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1 톨비스트-휘닉스CC 드림투어 7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2백6십만 원)'에서 구래현(21)이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구래현은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타를 줄여 선두와 1타차 공동 4위로 최종라운드에 나섰다. 최종라운드 2번홀에서 첫 버디를 솎아내며 기분 좋게 출발한 구래현은 남은 홀에서도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추가해 6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133타(67-66)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구래현은 "지난 6차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준우승을 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바로 다음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구래현은 "지난 대회 퍼트감이 좋아서 이번 대회에서도 퍼트만 잘 따라주면 우승까지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지난주 준우승 경험이 오늘 우승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구래현은 국가대표나 국가 상비군 경험은 없지만 지난 시즌 신인으로 출전한 KLPGA투어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 2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아쉽게 3위로 마무리하면서 골프 팬에 얼굴을 알렸다.

구래현은 프로 골퍼인 부모님에게 골프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아버지인 구상모(54)씨는 KPGA 코리안투어에서 2001년까지 뛰었고, 어머니 오윤희(54)씨는 KLPGA 회원번호 91번으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KLPGA 정규투어에서 활약했다.

구래현은 "아버지는 잘 안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어머니는 잘하는 부분을 나만의 강점으로 만들어주신다. 두 분의 역할이 서로 다른데, 모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힌 뒤,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올 시즌 목표를 '드림투어 1승 추가'라고 밝힌 구래현은 "정규투어에 다시 입성하고 싶다. 어릴 때부터 정규투어에서 첫 우승을 하면 기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내년에 기회가 온다면 정규투어 우승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구래현은 이번 우승으로 상금순위 7위에서 2위로 5계단 도약했고, 권서연(20,우리금융그룹)은 고지우(19)와 함께 공동 2위에 오르며 상금순위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밖에 김민주(19)가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9-66)로 단독 4위에, 장은수(23,애니체)와 조은혜(23,엠씨스퀘어), 한세리(26)가 7언더파 137타로 공동 5위 그룹을 형성했고, 지난 6차전 우승자 김윤교(25)는 1언더파 143타(68-75)로 공동 56위에 머물렀다.

톨비스트와 휘닉스 컨트리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최종라운드는 주관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6월 23일(수) 19시 30분부터 녹화 중계된다.

전순희/기자

2021 온택트 부안마실축제 공모전 수상작 선정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2021 온택트 부안마실축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마실영상 공모전 등 3개 분야의 공모전에 대한 최종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부안 마실영상, 마실댄스UCC, 포트터 공모전 등으로 지난 5월 10일에서 6월 11일까지 접수된 총 136개의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총 32개의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영상, 댄스, 디자인 등의 전문가와 제전위 위원들로 구성된 총 7인의 심사위원이 기획성,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등을 고려한 세부 심사기준에 의해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을 비롯해 영상분야 14명, 댄스분야 11명, 포스터 분야 7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일상에 지쳐 쉼이 필요한 친구에게 SNS를 통해 부안에서 쉴 곳을 대신 다니면서 소개하는「쉼, 부안」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영상부문 최우수상에, 마실축제의 흥과 우리 고유의 전통무술인 태권도가 융합된「부안마실축제와 태권도의 만남」이 마실댄스 UCC 부문 최우수상에, 시원한 밤하늘과 부안 바다를 조화시켜 마실축제의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를 표현한「즐거움 가득, 부안마실축제」가 포스터 부문 우수상를 차지하였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들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선정된 수상작들은 추후 부안마실축제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제전위 부위원장은 " 전국 각지에서 많은분들이 양질의 작품들을 많이 출품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공모전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며 " 부안마실축제 공모전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안마실축제가 전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부안마실축제는 온라인 공모전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태/기자

성남 효성고등학교 "나노과학동아리" 수제비누 기탁

성남의 효성고등학교 "나노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수제 비누 750장을 6월 18일 성남시에 기탁했다.

효성고등학교 나노 과학동아리는 이날 오후3시 시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이웃돕기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이번 전달식에는 이경민 동아리 지도교사와 이수연 동아리부장, 동아리 회원 5명이 참석했였다.

이 동아리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매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수제비누를 직접 제작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9년째 성남시에 전달하고 있다.

지역의 모범적인 동아리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경기도 과학동아리 발표대회 최우수상, 전국 과학동아리 발표대회 은상, 전국 중고생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동아리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수연 회장은 "동아리 지도교사님과 회원들이 매년 함께 시간을 내어 수제비누를 제작하게 됐다" 며 "작은 사랑나눔 실천으로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탁받은 수제 비누는 지역의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배분할 예정이다.

이성율/기자

서구 비산2.3동'LG BEST SHOP 북비산점' '착한가게' 현판 전달

2021년 6월 10일 비산2.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중섭)는 가게의 나눔 실천중 하나인 착!착!착! 착한 대구캠페인에 가입한 LG BEST SHOP 북비산점(대표 박종운)과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캠페인으로 매월 3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하며 모금된 기부금은 관내 저소득 계층 및 복지위기가구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오중섭 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기꺼이 나눔에 동참해주신 박종운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비산2.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눔 문화 확산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운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서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에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부천서 안전히 즐기는 공연생활

부천문화재단, 재단 홈페이지서 6월 22일부터 예매

안전하게 즐기는 공연으로 부천이 문화생활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간다.

부천문화재단은 6월 22일부터 하반기 공연을 공개하고 예매를 시작한다. 공연은 총 18개 작품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재단이 올해 선보이는 '기획공연 공:감'(공연감동)은 총 6편이다. 공연은 ▲역사와 함께하는 퓨전국악 콘서트(8.14.)를 시작으로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10.8.~10.9.) ▲연극 '춘하추동 정거장'(10.22.~10.23.) ▲가족극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11.13.) ▲판소리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11.19.) ▲코믹 마샬아츠 퍼포먼스 '점프'(12.3.~12.4.) 등이다.

첫 번째 기획공연인 '역사와 함께하는 퓨전국악 콘서트'는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전석 무료로 열린다. 연극 '춘하추동 정거장'과 가족극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는 지역 토박이 예술단체의 창작을 지원하는 '부천공연창작소'를 통해 탄생한 작품으로 의미를 더했다. 또 판소리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판소리계 아이돌 김준수, 국악계 프리마돈나 박애리, 국민 소리꾼 유태평양 등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재단은 지난 3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선정돼 6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이번 기획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 사업은 전국 문화예술 나눔을 통해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과 세대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또 객석 30%를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다.

코로나19로 오랜 실내 생활에 지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안전한 어린이 공연도 마련됐다. 재단은 판타지아극장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우수 어린이 공연 4편과 쉽게 관람하기 어려웠던 공연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줌 인 스테이지' 5편 등 총 9편을 7월부터 11월까지 준비했다.

어린이 공연은 ▲국악인형극 '이야기 파시오'(7.30.~7.31.) ▲가족뮤지컬 '스틸의 환상 놀이터'(8.27.~8.28.) ▲가족뮤지컬 '프링프링 마리의 마법학교 대모험'(10.29.~10.30.) ▲창작인형극 '춤추는 꼬마 마녀'(11.26.~11.27.) 등이다. 판타지아극장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도 7월부터 11월까지 5편을 마련했다.

0~24개월 대상의 영아와 보호자를 위한 맞춤 공연도 준비됐다. 재단은 2016년부터 0세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5년간 총 3개 단체와 5개의 아기공연 작품 레퍼토리를 개발했다. 올해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주제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의 첫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아기들의 시선과 예술가들의 해석으로 재탄생될 이번 신작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공연된다.

재단은 경기 최초 어린이 공연장인 판타지아극장에서 면역에 취약한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매 공연 뒤 소독, 거리두기 객석제, 10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 동반관람 의무화 등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공연과 영상 관람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예매와 예약이 필수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재단은 문화예술에 '무장애'(Barrier free)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 최초 입체 오디오극 '눈의 여왕'(원작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제작해 공개한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부터 무장애를 실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배우 캐스팅, 점역교정사 감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 배우들이 오디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자 대본도 별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단은 7월 중 제작발표회를 열고,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8월 온라인을 통해 무료 공개할 예정이다. 재단은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격차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무장애의 의미 자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재단 문화기부사업 빛*날과 연계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부금이 쓰여 의미를 더한다.

부천 기반 콘텐츠로 만든 공연도 공개된다. 재단이 발간한 '도시다감 : 감정사전'을 바탕으로 한 '소년소녀 클래식, 감정교향곡'을 연출가 오세혁, 음악감독 김우성과 함께 제작한다. '도시다감 : 감정사전'은 부천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기록한 책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마다 발간된다. 공연은 7월 23일 복사골아트홀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두 차례 전석 무료로 열린다.

재단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운영, 공연장 소독, 입장 전 발열 확인과 출입 등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시민 거리두기' 캠페인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있다. 각 공연 예매와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순희/기자

온두라스공화국 초중등 학생, 경북 웹툰으로 공부한다

경상북도가 군위 삼국유사를 소재로 제작한 브랜드 웹툰'한여름 밤의 꿈'이 6월부터 중미 온두라스공화국의 초중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게재된다.

주 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지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자, 미주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콘텐츠인 웹툰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현지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웹툰 연재를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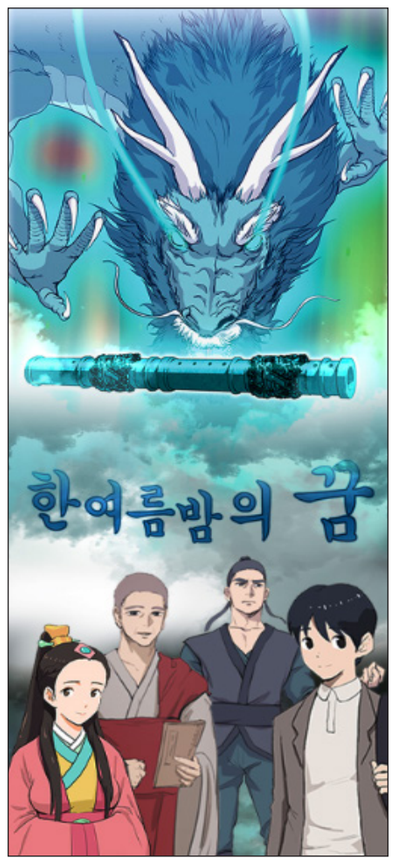
온두라스 내 최대 민영 교과서 출판사인 산티야나(Santillana)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500여 사립학교 학생들이 이용, 나아가 인근 국가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도 같은 플랫폼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웹툰과 경북의 홍보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여름 밤의 꿈'은 2020년 경상북도와 군위군,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주관, 승려 일연과 군위 인각사를 중심으로 삼국유사 속 처용, 연오랑 세오녀 등 이야기를 총 12화로 제작한 지역 홍보 브랜드 웹툰이다.

한편, 경북도는 웹툰 산업 활성화와 웹툰 신인작가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경북웹툰캠퍼스를 경주 황리단길에 구축 중에 있으며, 또한 매년 브랜드 웹툰 제작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웹툰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홍보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우리 웹툰의 해외 온라인 교육 플랫폼 게재는 경북과 한국의 문화를 해외로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도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어울림 한마당 with K-POP" 개최

전 세계 新한류 타고 강원도 홍보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강원도는 오는 8.2일 도청 내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강원 LIVE에서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어울림 한마당 with K-POP」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6.21.부터 7.16.까지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 모집과 예선을 진행하며, 참가분야는 가요, 댄스, 랩, 밴드 등 K-POP으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또는 유학생 50% 이상의 비율이면 한국인 대학생도 참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들의 끼를 발산함은 물론, 한국인 동창생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최우수 1, 우수 1, 장려 1개를 놓고 벌어지게 될 8.2. 본선 경연은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강원 LIVE 에서 열리며, 국내·외에 있는 가족, 친구, 대학관계자 등 300명의 청중이 랜선으로 참여한다. 또한, 수상자와 고국의 가족과 랜선 만남의 시간도 마련, 잔잔한 감동의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道 중국통상과장은 이번 유학생 K-POP 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잠재적 강원도민으로 자리매김하여, 문화관광, 수출 등 홍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공예창업 위해 1천만원 지원금. 멘토링 지원

한국도자재단이 공예 분야 창업 희망자를 위해 1,000만원의 창업지원금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2021 공예창업지원 예비창업자 패키지 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39세 이하 공예 기반 창업희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 규모는 공예디자인, 융합공예상품, 공예 콘텐츠 등 3개 분야 총 4팀이다.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로 약 12팀을 선정하고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 4팀이 결정된다.

세부 지원 내용은 ▲팀당 1,000만원 창업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및 교육시스템 ▲창업실 및 시설·장비 이용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내년 4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공예 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예창업자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예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울산박물관 개관 10년 울산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우뚝'

울산박물관이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우뚝 섰다.

울산박물관(관장 신형석)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6월 22일 하루 동안 다양한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울산시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오전 11시에 박물관 홍보영상 관람과 경과보고, 2021년 유물기증자 감사패 증정, 송철호 시장의 영상 기념사, 손종학 시의회 부의장의 축사 등이 진행된다.

이후 자리를 옮겨 박물관 앞 열린마당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기획전시실I에서 열리고 있는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울산 역사와 미래를 담는 그릇, 울산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소장품전-'을 관람한다.

오후 행사로는 명사 초청 강연이 있으며, 전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관장이 '박물관의 역할과 그 의미 - 박물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박물관이 '문화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선두에서 활약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나라 대표 공립박물관으로 발전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건립단계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박물관', '시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을 목표로 달려온 울산박물관이 이제 10년을 맞게 되어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박물관은 지난 19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의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2003년 8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울산대공원 내 3만 3,000㎡ 부지에 건축비 472억 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만 4,400㎡ 규모로, 지난 2009년 1월 착공해 2011년 6월 22일 개관했다.

당시 우리나라 박물관 가운데 10위권 규모를 자랑했으며,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개관 이후 10년 동안 유물 기증,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보하였으며, 울산 출토 국가귀속유물을 포함하여 현재 11만 5,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누적 관람객은 180만 명에 달한다.

울산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인 올해 '울산 여행의 시작, 울산박물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박물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기현/기자

포항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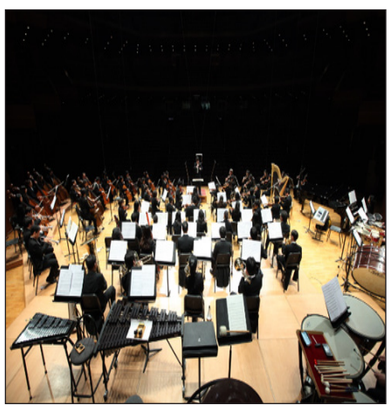
'포항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Ⅰ)'가 오는 23일과 24일 오전 11시 포항시 북구 환여동 소재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서 열린다.

포항시립교향악단은 지역 초·중·고 학교 순회공연을 연 16회 정도 가져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학교 순회공연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학교 강당보다 더 크고 쾌적한 공연장에서 청소년을 초대해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연주회 관람대상인 청소년은 도교육청문화원측에서 선정했다. 각 학교와 협의해 참석 가능한 학교 학생을 하루에 300명 초대했다. 시립교향악단의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올해 상반기 2일, 하반기 2일 공연하기로 했으며, 상반기는 6월 23일과 24일, 하반기는 9월 14일과 15일 각각 계획돼 있다.

이달 공연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위해 다 같이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며 들을 수 있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프랑스의 작곡가 생상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 14곡이 연주된다. 곡마다 나레이터가 악기소리로 동물을 묘사하는 설명을 하면서 진행되는데 청소년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2명의 피아니스트 협연자가 필요한 동물의 사육제는 포항예술고등학교 2학년 정유현 양과 안예원 양이 협연한다. 지휘를 맡은 임헌정 포항시립교향악단 예술 감독은 "가급적이면 지역음악 꿈나무들에게 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곡은 비제가 작곡한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2번 중 파랑돌이 웅장하게 연주된다.



9월 하반기 공연 공연은 대구MBC 교향악단 지휘자인 진솔이 객원 지휘한다. 9월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을 위해 교과서 수록곡 위주로 연주할 계획이다.

김세기/기자

‘코로나19’라는 기나긴 장마 속 경상원과 함께 외식업 창업에 도전하는 경기도 청년 25명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25명을 선정, 단계별·실질적 창업 역량 향상을 위한 청년창업 육성사업인 2021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입학식을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는 외식업에 특화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준비교육 ▲창업계획 진단 ▲전문분야별 쉐프의 실무 지도 ▲창업아이템과 창업계획 완성도를 검증하는 품평회 및 경쟁오디션의 등 단계별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등수가 결정된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4~5개월 교육기간을 거쳐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경쟁 속 등수에 따라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의 사업화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청년사관학교 1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작년 11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수제버거 가게를 창업한 심예섭 졸업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창업 이후 월평균 2,500만원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창업 이전 철저한 준비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과 체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성공 후기를 전했다.

지난해 청년사관학교 1기 홍석천 사관학교장에 이어, 올해 2기는 이태리음식 전문점 “친밀”의 오세득 오너쉐프가 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됐다. 입학식에 참가한 오세득 사관학교장은 “현재 자영업 시장에서의 성공은 말을 타고 움직이는 과녁 중앙에 화살을 명중시키는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두가 희망하는 성공 스토리가 아닌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들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은 입학식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자영업자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그 중에서도 진입 장벽이 낮아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외식업의 포화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쟁 속 외식업 창업은 큰 용기와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나기인줄 알았던 ‘코로나19’라는 기나긴 장마를 경기도 청년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경상원이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근수/기자

경북도 전통시장, Naver와 함께 온라인으로 진출한다

온라인 장보기 10개 시장(233개 점포), 전국 배송 11개 시장(66개 점포) 개척

경상북도는 비대면 시대에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구조 변화에 맞추어 네이버 쇼핑에 경상북도 전통시장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관에는 전통시장의 신선식품 등을 2시간 내에 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10개 시장(233개 점포), 전통시장 명품 상품을 전국배송사업으로 11개 시장 66개 점포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8월 까지 서비스 구축 후 온라인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는 네이버‘동네시장 장보기서비스’에 시장별 입점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5km이내 근거리 배송서비스를 지원하며, 신선한 먹거리와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2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시장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을 줄여 줄 수 있다.

온라인 전국배송 서비스는 네이버‘시장명물’에 점포별 입점하여 이용자가 구매하기 쉽게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역의 명품 상품을 전국 어디서든 받아 볼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는 물론 경북의 우수한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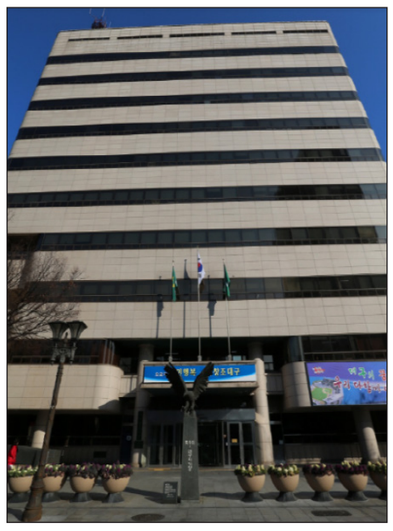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산업 구조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전통시장의 강점인 오프라인 감성과 아날로그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고객 유인에 노력하는 상인들의 힘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경북도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온라인진출과 전통시장 온라인 정착을 위하여 라이브커머스, SNS홍보, 맘카페 등을 활용한 마케팅에도 주력하여 경북 전통시장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김세기/기자

‘이젠 나도 CEO!, 제1회 대구여성 창업스타전’

신청은 주관기관인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8.10.(화)까지 온라인 제출



대구시는 예비 및 새내기 여성창업자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여성창업 경진대회인 ‘이젠 나도 CEO,제1회 대구여성 창업스타전’을 개최하고, 공모전에 참가할 여성을 6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참신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 대상 창업 공모전으로 대구시가 주최하고 여성취업지원기관인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한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중 예비 또는 창업 후 1년 미만인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인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 공모전은 대상 1팀(3백만원), 최우수상 2팀(각 2백만원), 우수상 2팀(각 100만원), 장려상 2팀(각 50만원) 등 총 7팀을 선발하며 순위에 따라 상금도 차등 지원한다.

우수팀은 먼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발표준비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거친 후 최종 PT 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수상자(팀)는 창업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1:1 전담 멘토링 기회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후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3일(금), ‘2021 여성 UP엑스포’ 행사 시 개최할 예정으로 시상뿐만 아니라 대상 수상자의 창업아이템 발표와 성공한 여성 CEO의 특강까지 있을 예정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새내기 예비창업자들이 도전해 창업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창업을 통해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전남 수출기업, 中 장시성에 130만달러 MOU

전라남도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국 장시성과 온라인 경제무역 상담회를 벌여 130만 달러 MOU 체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경제무역 상담회는 지난해 12월 전남도-장시성 간 온라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사업의 하나로 양 지역 간 경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시성은 전남도와 2004년 우호 교류를 시작해 2012년 자매결연을 한 지역이다.

1부 행사에서는 전라남도 현황 설명에 이어 장시성 바이어 40여 명을 대상으로 장류, 건강기능식품, 곡류 가공식품, 화장품 등 10개 사 20여 제품을 소개했다.

2부 행사에서는 도내 수출기업 10개 사와 장시성 바이어 18개 사가 참가한 1대1 매칭 제품 상담회를 온라인 화상상담 형태로 진행했다. 중국 현지 바이어에게 수출제품 설명자료를 사전에 송부하고 상담을 원하는 도내 수출기업을 매칭했다. 또한 중국 현지 상담장에 도내 수출기업의 제품 샘플을 전시해 바이어가 실제 제품 샘플을 체험토록 했다.

그 결과 10개 사 상담액 188만 달러, MOU 130만 달러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이번 경제무역상담회에 참여한 중국 현지 바이어와 수출기업 간 추가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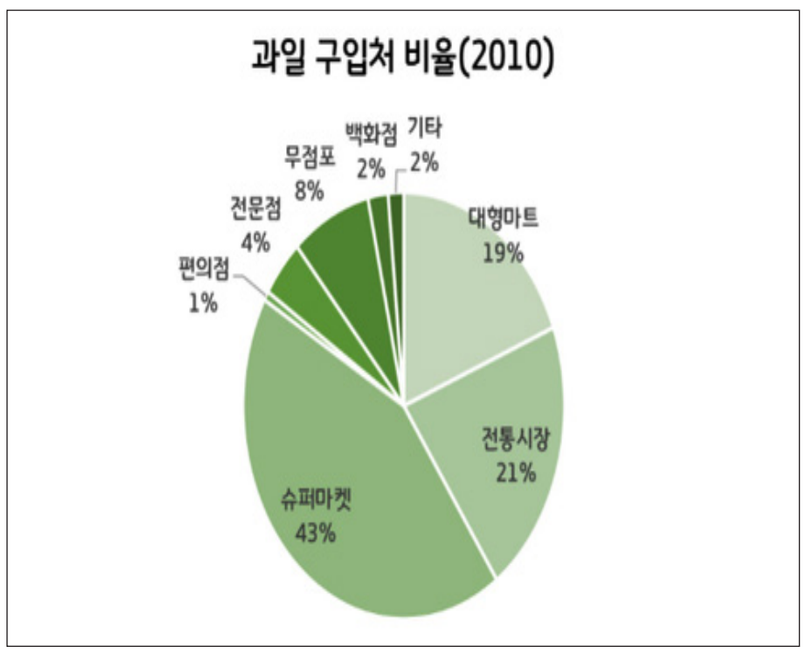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온라인 상담회가 두 지역 간 원활한 교역을 매개로 무역 분야 새로운 상생 모델로 발전해 수출 활성화와 함께 우호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자매우호지역 중 한 곳인 중국 산시성과 오는 18일 온라인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7월 초 베이징, 상하이, 쓰촨성 청두 지역을 대상으로 제3차 중국 비대면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김영안/기자

경기도 수도권 가구, 과일값으로 1년에 34만4천원 썼다…10년간 감소추세

’19년 수도권 가구당 과일 구매액 평균 34만4천원...감소 추세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는 과일을 1년에 평균 40회 구매하고 과일값으로 34만4천 원가량을 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구매빈도와 구매액은 10년 전과 비교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소비자 패널 조사 자료 중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742가구의 과일 소비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742가구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과일 구매빈도는 연간 47회이고, 구입액은 35만7천 원이었다. 종류별로는 사과 8만 원, 포도 5만4천 원, 복숭아 4만3천 원, 배 2만9천 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각 가정의 연도별 가구당 평균 구매액을 보면 2010년 35만5천 원에서 2012년 38만2천 원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34만4천 원으로 낮아졌다. 2012년 이후로 미세한 증감은 반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감소 추세로 분석됐다. 10개년 분석 결과 중 최고 구매액인 2012년 대비 2019년에는 10% 감소한 것이다. 구매 빈도도 2010년 54회에서 2019년 40회로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각 가구의 과일 평균 구매액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가구의 경우 22만7천 원에 불과했지만, 40대는 35만4천 원, 50대는 40만2천 원, 60대 이상은 40만5천 원 순으로 60대 이상 가구의 과일 구매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주요 과일 구매액 변화는 2013년 대비 2019년에 배, 복숭아, 체리 구매액이 늘었고, 1인 가구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체리 등의 구매액이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체리·복숭아 구매액은 2013년 대비 2019년에 각각 74%,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 구입처는 2019년 기준 슈퍼마켓(52%)이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18%), 전통시장(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일 구매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과일 생산 농가에서는 소비트렌드 파악을 통해 품목 및 품종 변화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판매업체는 소비자 특성에 맞춰 먹기 간편한 컵과일, 씻어나온 과일과 같은 상품 출시 등의 판매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발굴 스타트업 기업 ㈜위나인, 구글과 협력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데이터기반 스타트업으로 발굴해 육성중인 ㈜위나인이 구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기업 협업 창구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위나인은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보험분야 스타트업으로 모바일 앱과 온라인 웹 ‘김보상’을 서비스한다.

‘김보상’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때 ‘나만을 위한’ 보상전문가인 독립손해사정사를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O2O(Online to Offline) 중개 플랫폼이다.

플랫폼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 매칭은 물론 보험지급금 계산, 업무진행 실시간확인, 미지급 보험지급금 찾기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위나인은 이번 선정을 통해 모바일 앱 분야 서비스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3억 원의 지원금을 받음과 동시에 구글로부터 컨설팅을 비롯해 세미나, 교육, 홍보, 글로벌 연계등의 성장패키지를 지원받는다.

변경호 위나인 대표는 “매칭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빅데이터와 AI 보험분석시스템을 접목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도움으로 세계 보험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맹창호 진흥원장은 “데이터기반의 스타트업이 충남형 디지털뉴딜의 기본모델 가운데 하나”라며 “진흥원 투자네트워크와 정책자금을 활용해 이들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정수정-아역 김하연, 선정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전 세대 아우르는 영화제 될 것"

배우 정수정(크리스탈)과 아역배우 김하연이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집행위원장 김한기) 홍보대사인 '구키프렌즈'로 선정됐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어린이영화제로 세계 각국의 어린이·가족영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축제이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는 '구키프렌즈'로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영화인을 선정해왔다.

기존 구키프렌즈는 주로 어린이 배우를 선정했다면, 올해부터는 세대 간의 화합을 모토로 내걸며 어린이·성인 배우 구분없이 어린이를 아끼는 영화인을 구키프렌즈로 선정하기로 했다.

첫 '어른' 구키프렌즈로는 배우 정수정이 선정됐다. 그는 어린이라는 공통분모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영화제로서 최근 코로나19와 어린이 관련 이슈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영화제 취지에 공감해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의 홍보대사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측은 "정수정 홍보대사는 그동안의 착실한 필모그래피가 증명하는 연기 열정과 장르를 가리지 않으며 팔색조 매력을 뽐내는 배우"라며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활력과 위로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수정은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부터 드라마 '상속자들', '슬기로운 감빵생활', '써치' 등으로 꾸준히 연기 경력을 쌓아오며 가수 '크리스탈'뿐 아니라 배우 정수정으로서도 입지를 다져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애비규환'으로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를 치루며, 임산부 '토일'을 통해 전형적인 여성상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제 57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신인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정수정은 장기용, 채수빈과 함께한 넷플릭스 영화 '새콤달콤' 공개를 앞두고 있고, 7월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 촬영에 한창이다.

한편, 영화 '소리꾼', '82년생 김지영'과 드라마 '누가 뭐래도'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 받은 아역배우 김하연 양이 어린이 구키프렌즈로 선정됐다.

김하연 양은 올해 영화제 트레일러 타이트롤을 맡아 첫 액션연기를 선보일 것으로 예고돼 기대감을 모았다. 영화제 트레일러는 단편영화 형식으로 제작되며 6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측은 "김하연 홍보대사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해왔으며,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이 집약되어 있는 배우이다"며 "올해의 구키프렌즈인 김하연 양이 미래의 영화인을 꿈꾸는 어린이 영화인들과 소통하며 영화제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키프렌즈는 6월 공개되는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7월 개최되는 영화제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다시 그리는 세대'라는 슬로건하에 7월 1일부터 7일까지 씨네큐 신도림과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무비블록 등에서 열린다.

어린이 영화뿐 아니라 어린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하는 어른들을 위한 영화를 포함 18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며, 아동관련 전문가들과 영화토크프로그램 등을 준비중이다.

전순희/기자

'결혼작사 이혼작곡2' 전혜원, 더 성숙해져 돌아왔다. 사이다 캐릭터 활약 기대

'결혼작사 이혼작곡2' 전혜원이 더 성숙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결혼작사 이혼작곡1'에서 사이다 캐릭터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배우 전혜원의 새로운 시즌에서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진다.

'결혼작사 이혼작곡2'는 지난 시즌에 이어 완벽해 보였던 부부들의 허상이 완전히 깨지며 세 남편이 펼친 아슬아슬한 불륜 행보가 이어졌다. 전혜원은 이시은(전수경 분)과 박해륜(전노민 분)의 딸 '박향기'역을 맡아 지난 시즌 아빠의 불륜 사실에 '팩트 폭격' 대사를 거침없이 내뱉은 캐릭터 열연을 펼쳐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전혜원은 시즌 2 역시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향기 캐릭터에 완벽히 스며들어 극 중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부모의 이혼 결정 이후, 마음은 힘들지만 밝은 미소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엄마 시은과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향기는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텅 빈 아빠의 공간을 슬픔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 순간은 어린 향기의 괴로운 감정이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해륜이 자식들에게 남기고 간 용돈 봉투는 단호히 거절하는 냉철한 말과 행동에는 아빠에 대한 배신과 실망감이 깊이 담기기도. 이처럼 전혜원은 향기의 다양한 심경과 태도를 섬세히 표현해 시은 가족의 서사에 시청자가 더 깊이 공감하게 했다.

이어, 지난 방송에서는 해륜의 불륜 상대가 남가빈(임혜영 분) 임을 시은이 알게 된 상황이 그려졌다. 하지만 아버지와 만나고 있는 상대가 가빈이란 사실을 모르고 향기는 뮤지컬 배우 가빈에 대해 호감을 드러냈다. 향기는 가빈이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 라디오 내용을 언급하며 "내숭 없으니까 더 끌린다"고 말해 시은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하며 안방극장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하지만 시은은 "사람, 겉만 봐선 모른다. 배우로서 기량 뛰어나다고 좋게만 보지 말아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시은의 의미심장한 말에 아리송한 표정을 지

은 향기의 모습에 묘한 긴장감이 더해져 예측 불가한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방송 종료 후, 향기와 가빈이 만나는 예고 영상이 전파를 타며 이목을 끌었다. 시즌 1에 이어 향기의 활약으로 사이다 같은 전개가 펼쳐질지 궁금증이 고조됐고, 짧은 영상에서는 분노 가운데 차분하게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한 듯한 통쾌한 말을 이어가는 똑 부러진 향기 캐릭터가 여실히 드러나며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매 회 짧은 등장에서도 임팩트 있는 대사와 절제된 감정 연기로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는 전혜원이 시즌1에 잇는 활약으로 다시 한번 안방극장에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TV CHOSUN 주말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2'는 매주 토/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첫방 '개미랑 노는 베짱이' 이연복X박종복, '공감+재미+힐링' 완벽 삼박자!

MBN 신규 예능 '개미랑 노는 베짱이'(기획 김창재/연출 안동수, 정해준)가 월요일 밤을 공감, 힐링, 웃음으로 수놓았다.

MBN '개미랑 노는 베짱이'는 열심히 일만 하며 달려온 각계각층의 일개미들을 위해 최고로 잘 논다는 베짱이 MC들이 힐링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연예계 베짱이 군단' 전현무, 장윤정, 김수찬, 김민아와 '자수성가 일개미 게스트'의 특별한 만남이 방송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지난 6월 21일(월) 방송된 '개미랑 노는 베짱이' 첫 회를 찾은 '일개미 게스트'는 중식의 대가 이연복과 부동산 투자의 신 박종복이었다. 안부를 묻는 MC 전현무의 질문에 두 사람은 "거의 쉬는 시간이 없다", "일년에 5일이면 많이 쉬는 편"이라며 바쁜 일상을 전했다. 이에 MC 장윤정은 "이 분들의 삶에 공감하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박종복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전했다. "부자가 되고 싶지?"라며 운을 띄운 박종복은 강남 건물주가 되는 법까지 전격 공개했다. '인프라를 잘 분석하는 것'이 그 첫 단계였다. 이어 박종복은 28년 부동산 인생이 담긴 투자 노하우를 막힘없이 전달하며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 이에 더해 박종복은 "신용카드 소비를 줄이고 신용등급을 높여라"며 실속 있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천직이다"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번뜩이는 박종복의 노하우에 관심이 집중된 순간이었다.

이날 박종복과 이연복은 시원 솔직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박종복은 사무실 내에 비밀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금고 속까지 공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개수, 시가까지 솔직하게 말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런가 하면 이연복은 조심스레 수입을 묻는 MC들의 질문에 "월 천만원"이라며 호탕하게 대답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했다.

이연복의 너튜브 도전기도 그려졌다. 이연복은 취미 생활마저도 "하려면 제대로, 할 때는 열심히"라는 좌우명처럼 열의를 보였다. 이연복은 정호영 셰프에게 전화 연결을 해 조언을 얻는가 하면, 이혜성 아나운서에게는 깜짝 섭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혜성과 공개 연애 중인 MC 전현무는 당황한 기색을 표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이연복이 사위와 떠난 여수 여행은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이날 이연복과 사위와 보인 특급 케미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이연복은 "사위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한눈에 들었다"라며 애정을 과시했다. 또한 이연복은 공복부터 회로 시작하는 남다른 회 사랑으로 군침을 유발했다. 이연복의 먹방을 본 MC들은 "오늘 야식은 회다", "제대로 힐링한다"라며 부러움을 한껏 드러냈다.

치열한 일상부터, 숨통이 확 트이는 힐링까지. 이연복, 박종복이 선사한 '일개미' 일상과 '베짱이' 하루는 월요일 밤, 고단한 일상에 지친 시청자에게 공감과 힐링을 동시에 선사했다. 이 두 사람의 본격적 힐링이 펼쳐질 '개미랑 노는 베짱이' 다음 회가 벌써 기다려진다.

한편, MBN 신규 예능 프로그램 '개미랑 노는 베짱이'는 매주 월요일 밤 11시 방송된다.

최광수/기자

'돌아온 로코퀸' 서현진, 사랑스러움 가득한 화보 공개

배우 서현진이 사랑스러움 가득한 여름 화보를 공개했다.

매거진 마리끌레르 7월호를 통해 공개된 이번 화보는 워치&주얼리 브랜드 로즈몽(Rosemont)과 함께한 화보로 tvN 새 월화드라마 '너는 나의 봄'으로 복귀를 앞둔 로코퀸 '서현진'의 로맨틱한 순간들을 담아냈다. 특히 설렘 가득한 첫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서현진의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로즈몽 특유의 우아하고 로맨틱한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개한 꽃처럼 싱그럽고 낭만적인 여름 화보가 탄생했다.

서현진은 연인을 바라보는 듯한 설렘 가득한 소녀스러운 모습부터 사랑에 푹 빠져 행복을 만끽하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까지 매 컷마다 다양한 감정선을 서현진만의 흡입력 있는 눈빛과 표정으로 섬세하게 표현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화보에서 서현진은 화이트부터 핑크, 블루, 옐로우 등 비비드한 색감과 러블리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의상에 로즈몽 워치&주얼리로 세련된 포인트를 더해 사랑스러운 서현진 표 여친룩을 완벽하게 선보였다.

서현진은 플라워 패턴의 새하얀 레이스 드레스에 밤하늘같이 깊은 색감의 블루 토파즈와 화이트 토파즈의 조화로운 반짝임이 아름다운 주얼리와 클래식한 시계를 매치해 우아함을 더하는 한편, 사랑스러운 셔링 디테일이 매력적인 블라우스에는 시그니처 장미 펜던트가 매력적인 목걸이와 귀걸이로 포인트를 줘 로맨틱한 무드를 극대화했다.

현유주/기자

클라라의 걸크러쉬 액션 블록버스터!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국내 개봉 확정!

클라라 주연의 액션 블록버스터 '배틀그라운드'가 국내 개봉을 6월 24일로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배틀그라운드'는 사상 최대의 상금이 걸린 대규모 서바이벌 VR 게임에 참가한 4명이 한 팀을 이뤄 우승에 도전하는 스토리로 VR 게임 속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과 승리를 위한 전술, 그리고 4명의 케미가 폭발하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수많은 영화와 방송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클라라는 중국 진출 이후 '장안복요', '대홍포'등의 영화에 출연하며 한류 붐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한류스타상,한중국제영화제 한중스타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블록버스터 액션 대작 '배틀그라운드'에서 그녀는 섹시한 매력과 함께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며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국 개봉을 확정 지으며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화염을 뚫고 나오는 거대한 탱크와 전투를 준비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앞에 스나이퍼 라이플을 들고 신중히 목표를 노리는 클라라의 모습이 보이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존하라!'라는 카피가 더해져 긴박한 전투 속에서 벌어질 치열한 생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서바이벌 VR 게임 속에서 클라라가 선보일 화끈한 액션을 담은 블록버스터 '배틀그라운드'는 6월 24일, 관객을 찾아간다.

전순희/기자

하도권, 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출연 확정! 대세 배우의 잇따른 러브콜!

배우 하도권이 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에 출연을 확정지었다.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는 1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권이 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연출 소재현, 이수현 극본 이영숙)에 출연하게 됐다. 그의 연기 변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하도권은 극 중 비밀스러우면서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녀의 서포터 오대표 역을 맡았으며, 풍성한 이야기에 보탬이 될 캐릭터로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펜트하우스' 시리즈, '스토브리그' '의사요한' 등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개성 강한 연기를 선보이며 각광을 받은 그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색다른 변신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대가가 담긴 소원을 파는 마녀식당에서 마녀 희라(송지효 분)와 동업자 진(남지현 분), 알바 길용(채종협 분)이 사연 가득한 손님들과 만들어가는 소울 충전 잔혹 판타지로, 오는 7월 16일 공개된다.

최재은/기자